

청·장년 성경공부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을 실천해야 될 때

<인도자 지침서>

Made possible by your gifts to the Mary Hill Davis Offering® for Texas Missions
텍사스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리 힐 데이비스 헌금으로 이루어진 성경공부교재입니다

글쓴이 : 펠리시 소그웨(Felisi Sorgwe)
조 블레어(Joe Blair)
찰스 왈톤(Charle Walton)
스티븐 햇필드(Stephen Hatfield)
타드 스틸(Todd Still)
캐리 플로리치(Carey Froelich)
프랜스 브라운(France Brown)
제넷 버튼(Janet Burton)
트레시 허벨(Tracy Hubbell)
크레그 웨스트(Craig West)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을 실천해야 될 때

판권소유 © : 2013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역개정 4판, 2010년 에서 했습니다.

BAPTISTWAY PRESS® Leadership Team

Executive Director,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David Hardage

Director, Education/Discipleship Center: Chris Liebrum

Director, Bible Study/Discipleship Team: Phil Miller

한국어 집필위원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을 실천해야 될 때

1과 ~ 2과 : 김훈희 (하나님의 꿈의 교회)

3과 ~ 4과 : 심재욱 (뉴송 교회)

5과 ~ 6과 : 김상진 (DFC 연구간사)

7과 ~ 13과: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편집위원

최승오 (새누리침례교회)

한국어 집필 팀장

팻 에컨(Pat Ekern), BGCT 교회건축센터,

초판 : 2013년 1월

♣ 이 교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는 교육 방법을 택하라.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섞어 사용해도 좋다. 각 방법은 실제로 도움을 주고, 가르칠 준비를 위해 곧바로 유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각 장의 **학습계획** 주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쉽게 배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가르침의 순서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첫 번째 주제 **‘삶과의 연결’**은 수업을 시작하여 공부할 마음이 생기도록 도와 줄 것이다. 두 번째 주제 **‘학습인도’** 적극적으로 집중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세 번째 **‘적용격려’**는 참가자들이 공부한 말씀을 삶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도와 줄 것이다.

수업을 시작할 때, 각 과의 첫 페이지나 **‘수업계획’**이 있는 지면에 공부하게 될 날짜를 적는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라. 수업계획표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E-Mail로 수업계획표를 보내어 언제 무슨 과를 공부하게 될 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각 과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주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1. 정해진 그룹 성경공부 시간보다 일주일 전에 먼저 이 책을 공부한다.
2. **‘수업계획’** 내용을 훑어본다. 목차와를 훑어보고 공부하게 될 내용이 전체의 내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후 공부하게 될 내용의 머리말을 복습한다.
3. **‘주제’**와 **‘탐구질문’**과 **‘학습목표’**를 숙고하면 각 장마다의 중심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4. 당신의 성경책을 사용하여 각 장의 성경본문을 기도하며 숙고하라. 각자 본인의 성경책을 사용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성경공부에 더욱 집중 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한다.
(각 과의 **‘학습계획’**과 **‘수업계획’**들은 저자마다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어떤 번역본을 사용하든지 자유롭게 비교하면서 사용하라.)
5. 성경말씀을 먼저 읽은 후에 **‘수업계획’**에 나와 있는 **‘성경주해’**를 참조하라.
(각 장의 지은이들은 각 장의 내용에 가장 충실한 성경본문을 채택했다. 물론 당신이 가장 은혜 받은 성경본문을 사용해도 좋을 것이다.)
4. 각 장에 주워진 성경말씀을 읽은 후에, 당신의 성경공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의 본문 해석을 읽는다.
5. 각 장에 주워진 작은 기사 - “참고” - 를 읽는다. “참고”는 추가적이고 주석적인 내용과 성령의 영감으로 당신의 생각뿐만 아니라 삶의 적용까지도 도와줄 것이다.
6. 각 장에 주워진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라. 주어진 질문들은 당신에게 더 깊은 생각과 적용점을 제시할 것이며, 그룹 성경공부시간에도 사용될 것이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8을 실천해야 될 때

인도자 지침서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인도자 지침서의 저자들

	학습 일자		
1과	_____	예수님의 증인의 책임을 받아들여라.....5 사도행전 1:1-8	
2과	_____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10 사도행전 1:12-14; 2:1-18	
3과	_____	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라.....15 사도행전 3:1-10	
4과	_____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라.....21 사도행전 4:5-31	
5과	_____	사람들의 필요를 통해 사역하라.....28 사도행전 6:1-7; 11:27-30	
6과	_____	예수님을 위해 기존의 견해를 도전하라.....34 사도행전 6:8-7:5,9-28, 35-41,44-60	
7과	_____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에 민감하라.....40 사도행전 8:26-40	
8과	_____	어려운 일들을 피하지 말라.....45 사도행전 9:1-22, 26-28	
9과	_____	모든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장벽들을 뛰어 넘어라.....52 사도행전 11:1-26	
10과	_____	당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59 사도행전 13:1-5, 13-14, 42-52	

11과	_____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65 사도행전 15:1-29
12과	_____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전하라.....71 사도행전 16:25-34; 17:1-4, 16-33
13과	_____	어떤 것도 당신을 막지 못하게 하라.....77 사도행전 28:17-31

<p style="text-align: center;">[제 1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증인의 책임을 받아들여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1:1-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1:1-11</p>	<p>학습주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분의 증인으로 가르치셨다.</p> <p>탐구질문 당신은 누구의 증인인가?</p> <p>학습목표 나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헌신하고, 본분을 공부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인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도들의 사도행전은 신약에서 누가의 두 번째 책이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다. 사도행전의 머리말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 40일 동안의 시간을 말하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시간 동안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셨다.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집중하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짚어내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실체임을 증명하여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지상에서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것들의 성취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클레오파스와 그의 동행자들을 꾸짖었다-다른 제자들도 꾸짖으셨다-“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누가복음24:25,26)।

세 번째 주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해를 여셨다는 것이다. 누가는 엠마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들과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자신을 알리시고 사라지셨다. 두 명의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누가복음24:32). 누가는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누가복음 24:45)

네 번째 주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명인 “대 사명” 이라고 부르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떠난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의 증인들이 되어 했다(사도행전1:8)

본문 해석

십자가 사건 전에 지상에서의 예수님 사역(1:1)

누가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그의 처음 책이었던 누가복음과 연결했다. 그는 “먼저 쓴 글에서”와 그의 복음 안에서 데오빌로 지목하고 있다(누가복음 1장3절을 보라).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라는 뜻이지만 누가는 그의 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준 것이라 밝혔다.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펠릭 주지사와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정부 관료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데오빌로가 정부의 높은 관료라는 것을 뜻했다. 누가가 쓴 복음 안의 글을 보면 데오빌로가 새로운 신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1:4)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그의 복음에 관한 말들을 명시하고 있다 “예수께서 하신 가르치시고 하신 모든 것들”. 이 말씀들은 누가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해설에서 성스러운 날들과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승천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부활에서 승천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사역(1:2-8)

1:2. 이 구절에서 “승천하신 날까지”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말한 우리 구주의 승천을 다루고 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베다니에서 멀리 데려가셔서 축복을 하신 후에 손을 하늘로 올리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시니”(누가복음 24:51). 그는 대한 제자들이 돌아온 것을 기록하고 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누가복음 24:52하-53)

누가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을 알려주는 저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이 특별한 사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누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가운데 축복하시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것을 기록했다(사도행전1:9). 그는 제자들이 보았던 천사들의 비전에 대해서도 묘사하였다. 제자들은 놀랐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올라가는 것을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1:10) 있었다. “흰 옷 입은 두 사람” 두 천사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천사들이 한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1:11). 천사들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목하고 있

다는 것이다. 눈으로 보는 가운데에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구름을 타고 그대로 오실 것이다.

1:3. 누가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을 강조했다. 복음 안에서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래서 유령을 보는 것으로 생각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누가복음 24:38).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그의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누가복음 24:39). 누가는 제자들의 복잡한 심정을 묘사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누가복음 24:41).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의 공포를 없애고 기뻐하도록 무엇인가 하셨다.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음식이 있냐고 물으셨다.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고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먹었다(누가복음 24:41-43). 그들은 유령을 본 것도 아니고 환각도 아니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다. 주님은 더 이상 하루 24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지는 않으셨다. 그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의 시야에서 없어지기도 하셨다. 40 일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정리하자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마태복음서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같이 사용하였다. 더욱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현존하는 곳이다.

1:4. 누가복음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누가복음 24:49).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이 명령을 확실하게 했다.

1:5. 주님은 말씀하셨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흥미롭게 “몇 날이 못 되어”가 열흘이 되었다. 침례 요한도 주님의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을 했다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실 것이요”(누가복음3:16). 제 2과에서는 성령의 침례의 의미를 비추어 볼 것이다.

1:6. 제자들이 주님께 이 같은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들이 묻기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너무도 당연하게 그들은 지상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비슷한 감정을 나타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누가복음 24:21).

1:7. 주님의 대답은 이렇다 너희가 정말 실마리가 없지? 그는 이렇게 말하실 것이다 너희가 정작 무엇을 걱정해야 할 지 말 하겠다

1:8. 누가는 사도행전 “대 사명”의 버전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이끈다. 주님은 첫째는 성령이 그들에게 올 것이다: 둘째는 그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셋째는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것인가 안내해 주셨다. 그들은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의 각 지방으로 갈 것이다. 이후에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갈 것이다. 누가는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을 기록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질문: 어떻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공포에 떨고 있었던 작은 그룹의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오늘 날 우리에게까지 올 수가 있었나? 어떻게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는지 반원들로 방법들을 연구하고 격려하게 한다.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와 로마에 가지고 갔는지? 어떻게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성실할 수가 있었는지 격려한다.

2. 반원들을 Study Guide 안에 있는 “사도행전 소개하는 글: 사도행전 1 장 8 절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을 보도록 초대하고, 13개 과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 사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교회로 하여금 지역적이고 문화적이고 인종적인 예루살렘의 장애물들을 뛰어 넘어 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반원들로 Study Guide 안에 있는 목차를 보고 사도행전을 공부할 계획들을 보도록 한다. 그들이 하여금 오늘 이렇게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초기 제자들의 신실한 증거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 시킨다. 반원들을 기도로 인도하고 이 공부가 반원들로 하여금 초기 제자들처럼 충성스런 증인이 되도록 격려하라.

학습인도

3. 사도행전 1:1-5. 반원들에게 누가복음 24:36-53 을 찾도록 하고 우리의 문헌은 누가가 처음 말한 이야기의 요약과 연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라. 누가는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을 상기시키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것을 배워서 로마인인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누가복음 1:3). 누가가 쓴 글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서구와 이방인의 세계에 흘러 들어간 것을 상기시키라.

4. 사도행전 1 장 3 절은 주님의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은 “많은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질문: 당신은 어느 정도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5.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침례는 미래에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말하라. 사도행전 1:6-8절을 읽어라.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입히고 그의 증인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질문: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성령께서 당신에게 임하셨는지 알 수 있는가?

6. 질문: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의 증인들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원들에게 증거를 하는 것과 증인이 되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하도록 격려하라. 마태복음 28 장 18-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의 사역(행함)은 우리의 생활 속으로(존재) 가서 “제자를 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라.

적용을 격려하기

7. Study Guide 안에 “당신의 왕국 속제를 인식하기” 에 있는 작은 기사를 조사하도록 인도하라. 질문들을 반원들과 재조사하라. 참여자들이 각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대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도록 격려하라.

8. 반원들에게 2000년간의 성실한 증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작은 그룹에서 우리에게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마무리하도록 한다. 개인들이 충실한 증인들이 되도록 기도로 인도한다.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in lessons 1-3 and 9-11 are taken from the 1995 update of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p style="text-align: center;">[제 2과]</p>	<p style="text-align: center;">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1:12-1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1:12-2:36</p>	<p>학습주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증인이 되고 사역하도록 능력을 주신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인간의 노력보다 성령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의 책임이 있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는 넓이를 평가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예루살렘의 다락방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날부터 오순절 날까지 매우 바쁜 장소였다.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셨고, 오순절 축제를 위해 다락방을 준비하라고 명하셨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중에 가졌던 마지막 만찬의 장소였다. 거기에서 주님은 황당한 예측을 하셨는데 제자중에 하나가 그를 팔 것이며 베드로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셨다. 다락방에서 주님은 말씀하셨고(요한복음 14-16장),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다(요한복음 17장). 그곳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락방으로 여러번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사도였던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뽑았던 곳도 다락방이었다(사도행전 1:12-26). 사도행전 2:1,2절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성경 주석가들은 그곳은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였던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던 곳으로 믿고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것을 명령하셨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가복음 24:49),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4). 누가는 독자들로 하여 제자들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것을 본 후에 올리브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에 도착한 후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1:13). 누가는 거기에 120명의 믿는자들이 있었음을 설명했는데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던 곳, 베드로가 사도였던 유다를 대신하여 맛디아를 선출했던 다락방을 말하고 있다(1:15).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누가는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1:14). 그곳에는 성령께서 오순절에 내려온 100명에서 12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다.

본문 해석

약속하신 능력이 오심(2:1-3)

2:1.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능력이 오셨다. “오순절” 이란 헬라어로 오십이란 뜻이다. 오순절의 축제라고 불리운 이유는 유월절 날 처음 일요일부터 시작되어 50일째에 축제를 한다는 의미였다(레위기23:15-16). 이 뜻은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던 해를 말하고 있는데 오순절의 축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신 후 50일째에 축제했던 것이다. 오순절 날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말한 다락방에 모였다. 그들은 기도에 열중을 했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1:14). 우리는 아침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알 수가 있다(2:15를 보라)

2:2-3. 이 구절들은 일이 일어났던 경험들을 설명했다. 제자들이 들었던 특이한 소리를 잘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모양을 보았다-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받은 능력의 표현(2:4-36)

2:4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들은 이 구절로 다투기도 한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거하심과 같은 말이고 이것은 어떤 믿는자나 거듭나는 순간에 일어난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보통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과 같은 뜻으로 동의하고 있고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다.

만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가졌다.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충만과는 다른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사랑으로 완전히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며,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적으로 구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 의아해 하기도 한다. 성경이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순절 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2:4) 조금 후에 “빌기를 다함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4:31). 모든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았듯이 다시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이 뜻은 성령의 침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번만 일어나지만(거듭날 때에) 성령의 충만은 믿는 자의 인생에서 한 번 이상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한다.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이 거하시지만 (또는

성령의 침례) 모든 믿는자들이 성령에충만한것은아니다.

이것은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순절 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고(사도행전1:5)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했다(사도행전2:4). 그렇지만 성령이 아직 교회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은 본래의 규칙에서 벗어난 예외였다.

성령님이나 성령의 침례나 성령의 충만을 방언과 같은 성령의 선물과 동일시 한적이 결코 없다. 방언을 할 수 없어도 성령이 충만한 믿는 자들이 있었고 방언을 하는 성령의 충만한 믿는자도 있었다(에베소서5:18).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믿는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받고 다스림을 받을 것을 계속적으로 명하고 계신다.

2:5-11. 제자들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2:4). 방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글로소라리아”로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이다. 다른 하나는 모르는 언어를 말하는데 다른 언어를 배운적이 없는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은 두번째 언어의 경험이다.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은 오순절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갈릴리에서 온 제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모든 구석에서 온 사람들은 세계를 대표했다.

2:12-13. 많은 사람들은 이런것들이 무슨 뜻인가 놀라고 의아해 했다. 그들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들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보다 상황을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꾸짖었고 술에 취했다고 비난했다.

2:14-15.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도들은 같이 섰고, 베드로는 군중에게 말했다. 그는 제자들을 꾸짖었던 어떤 사람들과 같이 꾸짖음으로 말을 시작했다. 그는 아침 9시부터 술을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가를 지적했다.

2:16. 베드로는 그들이 경험한 것은 요엘의 예언의 말씀에 성취를 경험한 것이라고 권위적으로 말해 주었다.

2:17-18. 베드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을 것인데-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노예나 자유인에게 부으신 것이고 성령님께서 예언을 하게 하실 것을 요엘 2장에서 인용했다. 예언(foretelling)에도 두 가지가 있다- 미래를말하는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이고 또 다른 예언은(forthtelling) 현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나중의 것은 설교와 비슷하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것을 활용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 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찔림을 받았고, 찔림을 받은 사람은 믿었고,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는 침례를 받았다. 3000명 정도가 구원을 받고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다(사도행전 2:37-41)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분만실에서 기다리던 마지막 날이나 의사에게 결과를 기다리거나 용자서류를 기다릴 때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기억하도록 격려하라. 반원중에 한명이나 두명을 초대해서 기다리던 때에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자기의 감정을 나누도록 한다. 좋은 소식을 기다릴 때거나(기대), 나쁜 소식(긴장)을 두려워 할 때의 틀린 점을 메모한다.
2. 반원중에 자기의 차의 배터리가 죽었을 때 경험을 설명하도록 자원자를 초대한다. 즉각적인 감정의 반응을 얘기하고 차를 다시 가게 하기 위하여 취한 이성적인 행동을 말하도록 한다. 질문: 죽은배터리는당신의영적인생활을어떤식으로설명하는가?
3.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으라. 질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를 상상해 보도록 하라. 제자들에게 약속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면서 주님은 그들이 영적인배터리가재충전이되듯이사명을위해서함께기도하고준비하는기회를주셨다. 기도를 인도한다.

학습 인도

4. 반원들이 STUDY GUIDE 안에 학습의 처음 제목을 조용히 읽도록 인도한다. 한 명은 사도행전 1:12-14를 읽도록 한다. 제자들이 올리브 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돌아와서 기도하려는 동기의 정도가 어느정도 었는가를 반원들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5. 질문: 이 말씀안에서 그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온 후에 태도의 특별한 점은 무엇들이 있었는가?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쉬지않고 기도했다) 반원에게 예레미야 29:11-13절을 읽도록 한다. 질문:예레미야의 말씀은 제자들의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무엇을 암시하는가?
6. STUDY GUIDE 안에 있는 문장에 집중하도록 한다.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과정에서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이다” 반원들에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목적있는 기다림”을 반원들이 이해하도록 격려한다.
7. 반원들이 일어나 일을 듣는 중에 누군가 사도행전 2:14-18을 읽어라.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가막힌 방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구절의 말씀은 그들의 언어로 선포된 복음을 이해한 것에 강조를 둔다. 질문: 성령의 역할과 목적에 대하여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8. 사도행전 2:14-18절을 읽게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경험을 기억하게 한다. 질문: 배신

50일후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반원들이 2:17, 18을 보도록
격려한다. 선지자는하나님께서성령을부으심으로나타나는결과에대하여뭐라고말했나?

적용을 격려하기

9. 반원들에게 눈을 감고 아래의 진리의 글들에 대하여 그들의 헌신을 비추어 보도록 한다:

- * 나는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는다. 나를 포함해서...
- * 나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성령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는다.
- * 나는 나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신뢰해야 함을 믿는다.

10. 반원들에게 위의 세 가지 문장들을 주중에 비추어 “목적있는 기도” 를 할 것을 도전하고
마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3:1-1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3장</p>	<p>학습주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필요를 돌봄으로써 증언하였다.</p> <p>탐구질문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어떠한 필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는가?</p> <p>학습목표 사람들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필요에 반응하는 방법들을 결정하도록 한다.</p>

성경주해

배경 이해

오순절의 사건은 교회사에서 새로운 날을 촉발시켰다. 그 날 성령님은 모든 제자들에게 강림하셨고, 베드로의 설교가 끝날 무렵엔 약 3,000여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신도들은 교회의 교제 속으로 빠져들었다. 신도들의 몸은 두 배가 되었다. 누가는 초기 교회의 행동을 묘사하기 위해 네 가지 중요한 모습을 사용하였다. 그는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고 하였다(행 2:42).

신도들은 함께 하였는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연합의 실제 모습은 그들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나눔으로 인해 어느 누구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집에서 빵을 떼고 함께 모여 기쁨과 진정으로 음식을 먹었다(행 2:44-47절을 보라).

세상은 사도들이 행한 “많은 기사와 표적” (2:43)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베드로가 “권능과 기사와 표적” (2:22)이라고 말했듯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의

일들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누가는 성령님이 이러한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시는데 있어서 어떻게 사도들을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그는 베드로가 어떻게 “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3:2) 있는 절름발이 남자를 치유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본문 해석

베드로와 요한이 절름발이 남자를 만나다 (3:1-2)

3:1.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늘 하던 일을 하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오후 3시에 성전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때는 오후 제사 시간이었는데, 회중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다.

3:2. 그들은 절름발이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옮겨져 있었다. 그들은 매일 신실하게 그를 문에 데려다 놓아, 그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는 예배자들에게 의연금을 구걸하도록 하게 하였다. 희망도 없고 끝도 없어 보이는 이 일이 절름발이의 죽음을 면케 해주었다. 그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절름발이였고, 나이는 40은 넘어보였다(4:22절을 보라).

절름발이는 구약성경에서 심각하게 취급되었다. 이는 아론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성전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결격) 사유가 되었다(레위기 21:17-23절을 보라).

절름발이 남자가 의연금을 구걸하다 (3:3)

절름발이 남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하였다. 절름발이 남자는 이것이 누구라도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절름발이 남자를 치유하다 (3:4-10)

3:4-5.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 남자를 의도적으로 바라보고, 베드로는 그에게 “우리를 보라!” 고 말했다. 이것은 남자에게 소망을 일으켜주었다.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많은 돈을 줄 것이라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는 기대를 갖고 그들을 보았다.

3:6. 만약에 베드로의 “우리를 보라” 라는 말이 절름발이 남자에게 소망을 주었다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그의 소망을 산산이 부수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 절름발이 남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당신들을 보아야 하겠오?* 그러나 베드로의 다음 말은 이 사람이 걷게 되리라고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삶을 바꾸는 말이 되었다.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다.

3:7. 이 사람은 한평생 자기 발로는 한걸음도 걸어보지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오른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일으켜 세웠다. 치유는 즉시 일어났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3:8. 그리고 치유는 극적이기도 했다. 절름발이였던 남자가 똑바로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매우 흥분하여서 “걸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하였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유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이용하다 (3:9-10)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이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 사람이 일평생 절름발이였고, 성전 때문에 앉아서 의연금을 구걸하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아함과 놀라움으로 충격을 받았다.

일평생 절름발이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걷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모두 달려갔다. 그들은 성전 안의 “솔로몬의 행각” 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게 되었다(행 3:11). 솔로몬의 행각은 이방인의 뜰과 가까운 곳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신격화할 위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설교할 기회로 삼았다(3:12).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이나 신성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반대로 베드로는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믿음이었다고 말했다(3:16절을 보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서 그들의 죄가 “없이함을 받으라” 고 하였다(3:19).

온전한 복음을 증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체적인 증언에 참여하였다. 온전한 복음은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름발이 남자를 만났고, 그들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에 앞서 육체적인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그들에게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랐다. 마태복음 15:29-39절은 우리에게 한 사례를 보여준다. 본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는지 말해주는데,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마 15:30)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마 15:31),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에 관심이 있으심을 표현하신다(마 15:32).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거기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을 먹이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먹이셨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표현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체적으로 제시하신 것은 지상에서의 사역과 보조를 맞추었다. 자신이 성장하신 나사렛의 회당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였던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눅 4:18-19; 사 61:1-2절을 보라). 그러므로 침례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신 것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눅 7:22). 예수님은 메시아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예를 보여 주셨다.

핵심 의미

예수님은 복음을 전체적으로 설교하셨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하였다. 우리는 복음을 전체적으로 증언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당신이 헐벗고, 배고프고, 마치 5일 동안이나 씻지도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불신자와 함께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니, 그 사람이 자신은 목욕을 매일 하는데, 비누를 살 능력이 없다고 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섬기겠는가?

한 학교에서는 영혼이 육체보다 더욱 중요하고, 한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제시하라고 한다. 어찌되었던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는 채워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는 당신이 이 사람에게 당신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목욕하기 위한 비누를 주어야 하고, 입을 옷을 주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전적으로 나은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알게 하기 위해 그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자의 학교는 절반만 옳고, 후자의 학교는 전적으로 옳다. 물론 완전히 틀린 학교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만을 채워주는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여기에서 적당한 균형을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도에 집중하는 많은 교회들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사역에는 약하다. 반면에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에는 강한 면이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전도에는 약하다. 한쪽에 치우친 나머지 다른 쪽을 무시하는 것은 복음을 전체적으로 증언하는데 실패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다음의 이야기를 한다:

제시는 67세의 노인이고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뇌성마비 환자다. 그는 정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교회 차량으로 교회에 간다. 불구로 인해 비록 아파트에서 도우미를 붙여주지만, 제시의 개인적 위생 상태는 좋지 않다. 매주 화요일에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지만, 일요일 아침에는 교회에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도착한다. 제시는 말도 분명하게 할 수 없고 다리를 절고 팔에 힘이 없어서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하지만 그는 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다.

2. 질문한다: 만약에 제시가 우리 교회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는가?

학습 인도

3.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1-5절을 읽게 한다. 질문한다: 제시의 상황과 매일 성전 문에 옮겨지는 구걸하는 사람과의 상황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절름발이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의 반응은 돈을 구걸하는 것이었음에 주목한다. 한 사람에게 요한복음 5:1-8절을 읽게 한다. 예수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의논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과 성전에 있던 절름발이 남자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느꼈을 것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한다. 질문한다: 당신은 절름발이 남자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돈 이상의 어떤 것을 기대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4.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4-5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둘 다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고 자신들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음을 말해준다. 질문한다: 이것이 절름발이 남자에게 어떤 느낌을 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스쳐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5. 한 사람에게 사도행전 3:6-10절을 읽게 한다. 간략하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베푼 권위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한다.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용의 “성경 주해”에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더 설명한다.

6. 이번 과목의 제목인 “전체적인 증언에 종사하라”에 주의를 기울인다. 학생들에게 베드로의 선물은 육체적인 치유보다 더 위대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육체적 도전이 그 사람의 전생애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치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나누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적용 격려

7.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에서 재정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주요 요인이고, 기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역할을 했다고 느끼게 한다는 점을 기억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제시의 이야기는 사실이고, 남녀 성경 공부는 제시를 함께 돕기 위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 매주일 남성 반에서 한 명이 제시를 목욕시키고, 매주 여성 반에서 한 명이 그의 옷과 침구를 세탁하였다.

8. 질문한다: 우리 교회 혹은 공동체에서 제시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학생들에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들을 돌보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베드로에게 절름발이 남자를 사랑할 힘을 주신 성령님이 수천명 앞에서 설교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9. 학생들에게 절름발이 남자 또는 제시와 같은 한 사람 혹은 그룹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기도로 마무리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제 4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기도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4:5-3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4장</p>	<p>학습주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기기 위하여 담대함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연습하였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기기 위한 담대함을 갖기 위해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기기 위한 담대함을 연습하는 방법들을 결정하도록 한다.</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오후 3시, 한 사람에게에는 모든 것이 평상시대로였다. 그는 걸을 수 없었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데려다가 “미문”이라고 불리는 곳에 데려다놓아 돈을 구걸하는 일상을 시작하였다. 날마다 그는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였고, 이날도 그런 날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에게,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혹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하루가 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왔을 때 기부하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돈이 없었지만, 그들은 훨씬 더 커다란 선물을 갖고 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였다(생 3:6; 3과의 3:1-10절을 보라).¹ 그 사람은 그렇게 했다. 그 사람이 느꼈을 기쁨을 상상해볼 수 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데려다놓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는 걸을 수 있었고, 심지어 뭍 수도 있었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다 - 이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행동했다.

그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군중이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사람들이 이전에 거부하고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선포하였다(3:15-16).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가르침으로써(4:1-2)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믿고, 그들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구약의 첫 다섯 책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활과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제사장이 아닌 속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

두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로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지위와 권위를 위협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의 치유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부할 수 없는 권능의 결과였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두 사도를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본문 해석

반대 세력 (4:5-8)

4:5-6. 현실은 언제나 극적인 면이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늘나라의 원리가 적용되는 새로운 개척자로 살아갈 때는 더욱 그렇다. 4장의 시작은 한쪽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권력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쪽은 산헤드린, 즉 유대의 공식 통치 기구였다. 7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그들은 주로 시민권 문제가 점령자인 로마에 속해 있는 것에 반해 종교적인 문제를 주로 결정하였다.

두 명의 죄인에 대하여 종교지도자들이 모인 것은 그들이 종교적 권위에 대한 위협에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성전과 종교적 권위와 반대되는 하늘나라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4:7-8. 통치자들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치유했느냐고 질문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권세와 능력의 원천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4:8) 그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만하여” 라는 말은 이전의 오순절 때처럼 성령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고 세우시는 새로운 경험을 하였다는 뜻이다.

통치자들에게 대답하는 담대함 (4:9-12)

4:9. 변호를 위한 최고의 상황은 당연히 나쁜 행위가 아니라 착한 행위를 변호하도록 질문 받는 것이다. 완쾌된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사해보라고 짐을 되돌려주었다. 어떻게 그들이 걸지 못하던 사람이 낫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설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4:10.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였다. “이름”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 목적, 권세, 그리고 능력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였던 일을 하도록 준비시킬 수 있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치유된 사람과 동시에 부활을 부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4:11-12. 베드로는 통치자들을 꾸짖음에 있어서 담대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시편 118:22절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이라고 하였다(4:11). 여기에서 사용된 “돌”이라는 것에 대하여 주석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벽이 서로 붙들고 있는 돌; 구조물을 받쳐주는 모퉁이 돌; 기초석; 구조물의 나머지 모양을 잡아주는 돌. 베드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하여 꼭 필요한 돌을 거절한 “건축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제 산헤드린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담대하였다 (4:13)

이 구절은 이번 과에서 배우는 담대함에 대한 적절한 초점을 제공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렵고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었다. 담대함의 근원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모든 것에 비교하여 그 믿음에 헌신하는 정도에 달려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이 한 일은 공의회원들을 “이상히” 생각하게 하였다.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랍비 혹은 다른 공공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3년 동안 듣고 또 본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되었다.

당황한 통치자들 (4:14-17)

4:14-15. 통치자들은 자신들이 진퇴양난에 빠져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부활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영향력을 무력하게 만들고 싶었지만, 인간에게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진정 어떻게 스스로 선한 일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죄인들을 놓아주었다.

4:16-17.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베드로와 요한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었다. 침묵하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그들을 누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인 것이다. 통치자들에게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들어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 완패된 증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담대한 응답 (4:18-20)

유대의 권력체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 “예수의 이름으로” (4:18) 다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피고인들은 공의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들의 말을 듣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최상인지 스스로 답해보라고 도전하였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하였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침묵하고 있지 않겠다.

효율적인 방어와 증언 (4:21-23)

4:21. 종교 권력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유 사건과 뒤이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을 잠잠하게 하고 경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계속해서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공의회는 다시 한 번 사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4:22-23. 치유 받은 사람은 성인으로 “사십여 세”나 되었고(4:22), 그렇게 어른인 사람이 치유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일이었다. 그 사건에 대하여 사람들이 흥분하여 찬양하였기 때문에, 권력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더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가 없었다.

교회가 축제하다 (4:23-26)

4:23.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곧바로 “동료에게” 즉 교회로 갔다(4:23).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의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은 기도와 예배하는 교회의 추가 지원을 받았다.

4:24-26.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응답하였다. 그들은 시편의 내용으로 자신들의 찬양과 기도를 표현하였다. 첫 번째는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시 146:6)인데, 위협과 압제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편 2:1-2절로 표현하였다. 이 시편은 열방이 “허사를 경영” 하고(시 2:1)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시 2:2) 내용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으신 자로 메시아이고 왕이시다. 사도행전에서의 “이방인” (행 4:25)은 민족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박해한 통치 권력은 “이방인”이었다.

축제는 계속된다 (4:27-28)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했다. 시편 2:2절의 군왕과 관리들에 해당하고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스스로 대항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에게는 책임이 있다. 그들도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음모를 꾸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실행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메시아 예수님에게 응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에 대항하여 힘을 합쳤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4:29-31)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의 경험에서 미래의 승리를 보았다. 필요했던 것은 자기 분야에서의 담대한 헌신과 증거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 (4:30)로

공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시 “성령이 충만” 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어진 사역에 “담대히” 말할 수 있게 하였다(4:31).

핵심 의미

베드로와 요한의 응답은 시대를 지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위에 대항하여 처형당하고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주고 있다. 만인 제사장, 영혼의 능력과 자유라는 침례교 믿음으로 볼 때, 그들이 한 말은 권력이 영혼의 능력과 자유를 위협할 때의 본보기가 되었다.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이 사건을 보면, 기도, 담대함, 그리고 행동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교회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한 대로 담대하게 행동한다. 이것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대함을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우리는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한다. 담대함은 행동 속에서 현실 그 자체가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믿을 때, 우리는 평안과 용기를 경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배운 핵심 본문의 분명한 특징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담대함은 또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와의 관계 속에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성경 본문의 분명한 점은 예수님의 교회의 존재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함께 격려하고 지원하고 행동할 수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교시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이 번 과의 개요를 사용한다(학생용 공과에서 가져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담대함을 위하여 기도하라(행 4:5-31)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섬기기 위한 담대함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연습하였다.

I. 최고 법정 앞에서 말함(4:5-15): _____

II. 담대함을 가진 보통 사람(4:13-22): _____

III. 신도들은 지속적인 담대함을 위해 기도한다(4:23-31): _____

개요는 www.baptistwaypress.org 의 이 번 과를 위한 “교수 자료” 에서 구할 수 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학생의 의자 위에 이 번 과의 개요를 놓아둔다. 개요를 사용하면 당신이 가르칠 때, 학생들이 빈 칸을 채우면서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 한 학생에게 당신의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요청하며 수업을 시작한다. 먼저 학생들이 편안하게 느끼는지 확인한다.

3. 다음의 “공포에 결코 지지 않을”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여 과목을 소개한다:

무술대회에 참가한 한 젊은이 이야기다. 그는 그 시합의 결승전까지 훌륭하게 진출하여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나게 되었다. 이번에는 상대방이 키도 크고, 더 강하고, 더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훌륭한 선수였기 때문에 어려웠다.

시합은 3분 3회전이였다. 2회전이 끝나면서, 이 젊은이는 맞고, 지치고 멍이 들었다. 2회전과 3회전 사이의 휴식 시간에 이 젊은이는 멍든 다리와 상처 난 영혼으로 바닥 을 향해 얼굴을 떨구었다. 그는 울면서 코치에게 더 이상은 시합을 할 수 없다고 말 했다. 포기하고 싶었다. 코치는 왜 포기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젊은이는 소리쳤다, “두려워요!” 그의 가장 커다란 상대는 반대편 선수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커다란 상대는 두려움이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많은 경우 사탄 혹은 세상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다.

4. 학생용 공과의 탐구질문을 살펴본다. 학생들에게 이 번 과를 통해서 당신이 질문하고 학생들은 답하도록 한다.

성경 공부 안내

5. 이 번 과의 성경 자료를 이해하고 분명히 하고 또 설명하기 위하여 학생용 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 부분을 언급한다.

6. 한 학생에게 사도행전 3:1-10절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사도행전 3:11-4:4절을 요약한다.

7. 한 학생에게 사도행전 4:5-12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나누어준 개요의 “최고 법정 앞에서 말함”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학생들에게 주어진 빈 카에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자유롭게 기록하도록 격려한다.

8. 사도행전 4:5-12절의 만남을 설명한다. 베드로와 요한이 권력자들과 가졌던 갈등의 긴장과 위험을 분명하게 한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의논한다.

9. 다시 탐구 질문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요 위에 담대함을 연습하기를 추가하도록 한다.

10. 한 학생에게 사도행전 4:13-22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이 번 과의 개요에 있는 “담대함을 가진 보통 사람”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담대함”의 뜻을 설명하고, 사도행전과 교회 역사에서 “담대함”의 예를 제시한다. 학생용 공과의 질문 가운데서 두 번째 질문을 한다.

11. 탐구 질문을 한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요 위에 담대함으로 저항하기를 추가하도록 한다.

12. 한 학생에게 사도행전 4:23-31절을 읽게 한다. 학생들의 주의를 이 번 과의 개요에 있는 “신도들은 지속적인 담대함을 위해 기도한다”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왜 신도들은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들이 기도한 결과를 의논한다.

13. 다시 탐구 질문을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요에 담대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추가하도록 한다.

적용 격려

14. 학생들에게 이 번 과에서 의논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요의 밑 부분에 이번 주에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으로서 “담대함”을 연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적어보도록 한다.

15. 학생용 공과를 참조하여 다음과의 학습 목표를 미리 살펴본다.

16. 시작기도를 한 학생에게 수업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수업을 마친다.

¹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한, 4-6과와 12-13과에서 인용한 성경은 “개역개정” 판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 5 과]	사람의 필요를 통해 사역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6:1-7; 11:27-30</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6:1-15; 8:1; 11:27-30; 12:25</p>	<p>학습주제 초대교회는 원근에 있는 곤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확대하였다.</p> <p>탐구질문 인간 필요를 채우는 사역이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에 어떻게 관련되는가?</p> <p>학습목표 인간 필요를 채우는 사역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대시킬 행동에 적어도 한 가지를 참여할 계획을 세우라.</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아마도 의도적이 아니게, 때때로 우리는 한 사람이 마치 두 구별된 개체처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듯이 언급하는 것 같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사람의 개념에 대하여 헬라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성경은 때때로 육, 혼, 영(body, heart, spirit, or soul)의 관점에서 한 사람을 언급하지만, 이러한 특별히 구별된 관점에서 좀 더 전인적으로 보는 이해를 보인다. 헬라 사상은 플라톤 사상의 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한 사람을 혼(a soul)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반면에 성경적 관점은 한 사람이 곧 영혼(a soul)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부활할 때, 비록 변화된 부활의 몸일지라도, 전인(the whole person)이 일으킴을 받는다(고전 15장을 보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대한 본문의 문맥은 예수님(Jesus)이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의 저자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곤핍하고,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아무 힘이 없는 자들 이었다.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주인공이 곤핍한 사람을 선택한다.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눅 10:30-37), 매 맞고 길가에 버려진 무명의 사람은 진정 곤경에 처한 사람이었으며 유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다. 극도로

곤핍한 상황에서 탕자는(눅 15:11-32) 그 비유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특징짓는 묘사는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행 10:38)이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전인적인 사랑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전인적 필요를 섬기도록 위임받았다.

본문 해석

알려진 필요(6:1)

초대교회 공동체는 곤핍한 사람들과 재물을 기꺼이 나누었다. 이 경우, 과부들이 주목을 받았다. 과부들은 종종 사회의 가장 빈곤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부는 많든지 적든지 간에 남편의 능력과 가용한 재물로부터 왔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만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축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과부는 다른 고아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했다. 유대교는 과부의 구제를 강조했고, 어떤 자선 기관이 보통은 상설되어 있었다. 초대교회는 공동체 구성원을 위한 자선기관을 설치했고, 때때로 그 공동체는 큰 규모였다.

어떤 해석자들은 “헬라파들” (“Hellenists”)은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으로 “히브리파”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유대인으로 해석한다. 다른 사람들은 헬라파는 단지 유대교 유산을 간직하면서 다른 문화들 속에서 성장한 후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유대인이었다고 한다. 아마 주류인 “히브리인들”이 태생적으로 좀 더 토박이였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히브리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을 편애했을 수 있다. 또는 아마도 히브리인들의 오랜 전통적 문화를 갖지 못한 이주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헬라파들”은 “매일의 음식 구제”에서 자신들의 과부들이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불평했다.

지도자들의 행동(6:2-3)

6:2. 지도자들은 “12명”으로, 사도라는 명칭을 가진 자들이었으며,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들이었다. 물론, 유다는 예수를 배반했고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여전히 12명이 있었다. 맛디아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선택을 받았다(행 1:26). 그리고 비록 맛디아의 이름이 사도행전이나 다른 곳에 다시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그는 다른 원래의 열 한 제자와 함께 자신의 책임을 수행했을 것이다. 열 두 사도들은 현명하게 그 불평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모든 제자를 소집하였다.”

사도행전 2:42은 그 공동체가 “교제,” “떡을 떼” (주의 만찬을 가르키기도 함),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지도력에 의존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 대접”을 하기 위한 책임들을 제외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구제는 유대인들 생활에 중대한 일로, 조직, 시간, 그리고 노력을 필요로 했으며, 열 두 사도는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전 공동체를 모았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중요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발견된 해결책(6:3-4)

이 전체 문제가 분열된 공동체를 와해시켜 분쟁에 빠뜨릴지도 몰랐으며, 이것은 주의 만찬을 지킬 때 “떡을 땀” (2:42)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시는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과부들에게 공급되는 떡에 대하여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다.

이 열 두 사도는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곤핍한 자들을 돕는 것을 포함하여, 사역을 위한 신학적 또는 신앙의 근거를 가져야 했다. 그것이 임명된 사람들이 “성령 충만” (6:3)해야 하는 이유였고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 설교, 그리고 기도의 의무를 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였다. 그리스도와 그의 삶, 가르침에 따르는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 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세력 다툼과 이기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열 두 제자는 말씀, 예수를 사역의 중심에 두기를 원했다.

공동체가 단결하다(6:5-7)

6:5. 그 불평이 다루어진 방법은 어떤 노력도 공동체의 재원을 통제하는 권위를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가리킨다. 교회는 열 두 사도의 지도력과 연결되었고, 물질을 나누어 주는 새로운 조직 구조를 쉽게 수용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인간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이 때에 조직 원리였다는 것을 주목하라. 교회는 관련시키는 인간 필요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간구해야 한다. 흥미롭게도, 매일의 구제를 섬기기 위해 선택된 자들은 아마 재정관리도 했을 것인데 헬라어 이름을 가진 것을 보면 명백히 헬라인들 이었을 것이다. 니골라는 귀화한 자로 유대 신앙을 채택한 이방인이었다. 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불평을 제기했던 사람들에게 말긴 것은 현명한 경영의 행위였다. 이 사건에서, 모두가 교회의 필요와 사역을 충족시키는데 참여했다.

선택받은 자들은 그 과업에 영적으로 적합했다. 스테반과 빌립이 처음에 나오는 두 이름인 것을 주목하라. 스테반은 재물을 나누는 일을 도왔고 그 이상의 일을 했다. 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열정적 증거자였으며, 우리들을 너무 화나게 했고, 사울이라 이름하는 자의 독려 하에, 그들은 폭도로 변하여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다(7:54-8:1). 우리가 아는 한 스테반은 첫 그리스도인 순교자였다.

빌립 또한 예수의 역동적인 증거자가 되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다(8:4-8). 또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8:27-39). 전통에 의하면, 그 에디오피아인은 고국으로 돌아갈 때 복음을 아프리카에 가져갔다고 한다. 교회가 지도자들과 성령의 준비하심 아래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직을 세울 때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6:6-7. 교회는 안수함으로 사역을 위해 선택된 자들을 임명하였다. 안수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의 축복과 지원의 행위였다. 나중의 신약적 의미에서 집사(deacons)는 아닌 반면에, 이들은 나중에 교회의 발전에서 집사직의 원형의 어떤 역할을 한다. 안수하는 것은 필요를 채우는 자원 나누는 문제의 중대성을 가리킨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다. 인간의 필요를 섬기는 것은, 비록 널리 복음을 전하는 과업에 비하면 작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섬기기 위한 협력적 노력(11:27-30)

11:27. 기독교 운동에서 두 중요한 교회가 이 시기에 나란히 존재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행 13장을 보라)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과 유대교 계종자에게 집중한 반면에, 이방인에 중점을 둔 선교에 좀 더 마음을 기울였다. 두 교회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사역했다.

11:28.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적 역할이 과거에 속했으며 랍비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메시지의 전달이라고 믿었다. 예수님은 물론 메시야로서 그의 사역에 다른 역할을 성취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성취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 역할에 공감했고 아가보는 이 경우에 그 역할을 했다. 그는 심한 기근이 온 세상에 올 것을 경고했다. “온 세상에” (“Over all the world”)라는 말은 기근이 광범위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의 근동적 방식이었다.

11:29-30.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원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각자가 힘이 있는 대로 헌금을 구별하기로 작정하고, 큰 곤핍 중에 있는 형제자매를 돕고자 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그들이 이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지도하도록 위임했다. 첫째로, 이 행위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들이 그 상황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둘째로는, 그 헌금은 기본 삶의 필요를 위한 진정한 구호를 제공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격려의 두 가지 면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또한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인과 선교 사역을 할 때 매우 중요하다.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간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력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사랑에 대한 굉장한 증거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학습자들이 어떻게 제 5과의 적용을 성공적으로 실행했는지 또는 그것을 실행하는데 어떻게 어려움을 느끼며 애썼는지에 관하여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나 기도 요청을 나누도록 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과의 적용을 위해 또한 기도하라.
2. 학습자들과 당신이 사람의 도움(재정, 집, 차량, 직업, 건강, 등등)이 필요했을 때를 나누라. 어떻게 그 상황이 해결되었는가? 여러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개인 경험을 나누도록 허용하라. 다른 선택으로, 당신이 인간 필요를 파악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도록 노력했을 때를 학습자들과 나눌 수 있다. 어떻게 그 상황이 해결되었는가? 여러 학습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나누도록 허용하라.
3. 당신이 믿기에 인간 필요를 섬기는데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
4. 학습 안내로부터 다음의 요약을 보여주라.
5. 학습 공과에 있는 이 과의 학습 목표를 언급하라.

위기를 언급하고 계획을 세우라(6:1-4)
 일곱을 선택하기(6:5-7)
 서로 사랑하라(11:27-30)

학습 인도

6. 이 학습 지침에서 학습안내와 “성경해석” 부분을 이과를 이해하고, 명쾌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료를 설명하기 위해 참조하라.
7. 사도행전 6:1-4를 읽을 자원자를 거론하라. 그 구절을 요약하라. 그 다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이의 차이를 설명하라. 또한 과부를 돌보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라.
8. 다음의 질문들에 중점을 두어 안내된 토론을 클래스에서 인도하라: 말씀 사역을 하는 것과 인간 필요를 채우는 것 중에서 어떤 사역을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가? 어떻게 이 구절이 난제를 언급하는가? 어떻게 사도들이 이 위기를 다루었는가의 예로부터 우리는 어떤 지도력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9. 사도행전 6:5-7을 읽을 자원자를 초대하라. 이 과를 요약하라. 어떻게 인간 필요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 사역을 해가는 새로운 길로 안내했는가를 강조하라. 클래스나 교회가 인간 필요를 섬기기 위한 기회에 관하여 안내된 토론을 클래스에서 인도하라.

10. 사도행전 11:27-30을 읽을 자원자를 찾으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이르렀는지 간단히 설명하라(행 6:8-8:1). 그 구절을 요약하라. “글라우디오 때에”(행 11:28)라는 구절과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설명하라.

11. 사도행전 11:29을 읽으라. 어떻게 교회가 가까이 살지 않은 곤핍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지에 관한 토론을 클래스에서 인도하라. 학습안내의 질문 5를 언급하고 질문하라.

적용을 격려하기

12. 학습자들이 조용히 앉아 눈을 감도록 인도하라. 그들이 특별한 인간 필요 상황에 관하여 생각하도록 인도하라, 이 질문을 하라: 이 주간에 그 상황에 관하여 당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

13. 학습자들의 헌신을 그대로 실천할 신실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p>[제 6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님을 위해 기존의 견해를 도전하라</p>
<p>핵심본문 사도행전 6:8-7:5, 9-28, 35-41, 44-60</p> <p>배경 사도행전 6:8-7:60</p>	<p>학습주제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기존의 견해와 관행을 도전했다.</p> <p>탐구질문 어떤 기존 견해와 관행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가?</p> <p>학습목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우리를 방해하는 기존 견해와 관행을 진단하기</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예루살렘의 새 교회와 오순절에 관하여, 처음 얼마간은 흥분과 변화의 조짐으로 가득 찼었다. 그들은 변화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휩쓸어 갈 것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지구의 지리적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주어진 명령이었다(행 1:8). 그리고 변화는 일어났다. 그러나 곧 권력자와 오랜 관습으로 굳어진 신념들은 변화에 반대하고 폭력적 저항을 일으켰다. 그 저항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변화가 어렵고 고통과 다른 대가가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지난 학과에서 스데반에 대하여 공부했다. 이미 지도자로서 분명히 세워졌지만, 그는 교회의 재원을 과부들에게 나눠주도록 피택된 자들 중에 처음 명단을 올린 사람이었다. 본문은 그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격을 묘사한다(6:5). 그렇게 충만함이 그에 앞서 그 직책에 요구되어 있었다. 명백히, 비록 성령으로 그에게 증거가 주어졌을 지라도, 그는 믿음으로 응답했다. 스데반에게 신앙은,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울 것과 같이, 다른 사람도 가졌던 것이었다. 그러한 신앙은

믿음, 또는 신뢰를 포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 의하여 신앙인은 모든 관계에서 그런 신앙의 내용대로 산다. 역동적인 믿음은 단지 신앙의 진술로서 일련의 명제를 수용하고 그들을 지적적으로만 고수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수님을 위해 굳게 서기(6:8-10)

6:8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문제의 핵심에 계셨다. 스테반은 매우 생생한 증거자로 그의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가지게 된 특성들인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주어진 은혜는 그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말할지를 안다는 것에서 스스로 증거했다. 주어진 능력은 그가 있는 곳에서 그가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종교적 문화와 관습에 의하여 강하게 거절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는 비록 기존의 견해를 거스리는 것일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도록 준비되었었다.

6:9-10.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보호받고 오래 지켜진 전통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유인들이” 그와 논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전 로마의 노예 후손으로, 아마 유대인과 개종자이었을 것인데, 다른 반대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회당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들은 스테반과 논쟁했지만 그가 성공적인 논리로 선포하는 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폭풍 구름이 모임(6:11-7:1)

6:11. 스테반의 반대자들이 논쟁을 이기지 못하므로, 그들은 스테반을 잠잠하게 하고 예수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썼다. 이같이 이들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거짓 증거를 선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송사는 신성모독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행위였다. 모세에 대한 언급은 그를 통하여 전해진 율법의 비방을 포함한다.

6:12. 그들의 고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양한 유대인 그룹 사이에 정서적 민감한 단추를 눌렀다. 장로와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과 올바른 적용에 대한 권위를 가진 자들로 이 문제에 연관되었다. 그들은 스테반을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강제로 세웠다.

6:13-15. “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웠다.” 그에게 적대적인 자들은 법정이 한 피고인을 심문하기 위해 단지 두 증인만을 요구했을 지라도 여러 증인을 필요로 했다. 그 증인들은 거짓 고소에 새 요소를 첨가했다: 스테반은 성전을 언급하며 “이 장소”의 파괴를 옹호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고소인들은 그를 유대교의 가장 거룩한 두 자산인 율법과 성전을 거스리는 폭력을 옹호했다고 비난했다.

6:15. 이 극적인 순간이 모든 사람의 눈을 스테반에게 집중하게 했다. 그러한 하나님, 율법, 그리고 성전 모독은 공회를 혼란케 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스테반과 함께 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기 때문이다” (6:15). 그러나, 스테반이 말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말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실로, 그의 반대자들이 그런 신성모독을 계속되게 방관할 수 있는가? 하지만 스데반은 그가 말하는 것에 백성들의 희망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말해야 했고 그 과업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제사장은 법정을 주관하면서 스데반에게 반대자들에 대한 자신의 변호 기회를 주었다. 스데반은 자신의 변호 제시에서 전체적인 방어 전략을 가졌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하나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열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동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종종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 거듭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제 그의 고소자들은 예수를 거절함으로 동일한 행위에 연관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예(7:2-5)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고국에서 불러내셨다(창 12장을 보라). 아브라함은 “밭붙일 만큼도” (7:5)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으나, 스데반이 언급하는 자들은 그 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의 자손들이었다. 요점은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땅과는 별도의 한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모두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성전이나 모든 땅에서의 업적에 제한하시지 않는다.

7:9-13.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 때문에 그를 종으로 팔아넘겼다(창 37-46장을 보라). 요셉은 애굽에 정착했고 거기서 바로의 총리가 되었다. 요셉의 가족들이 심한 기근에 처했음을 알고, 야곱은 그 형제들을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보냈다.

7:14-16. 형제들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요셉은 자신을 오래 전에 그들이 노예로 팔아넘긴 동생인 것을 밝혔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해가도록 도왔다. 스데반의 고소자들은 기근의 구호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국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아마 스데반은 또한 요셉과 예수님 사이의 유사점을 이끌어 내려고 의도했을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거절하고 그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듯이, 이제 예수의 형제들(동포 유대인들)은 만일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구원자가 될 그를 거절하고 있었다.

7:17-22. 애굽에 살고 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에 살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번성했다. 그러나 그 때 다른 바로가 통치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련을 가져왔다. 모세는, 그러는 사이에, 바로 딸의 양자가 되어 어른으로 성장했다. 모세는 애굽의 지혜를 배웠고 “말과 행사에 능한” (7:22)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룩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새 애굽 통치자의 거친 압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땅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사람 손으로 만든 한 집(성전)에 억매이지 않으신다(7:49-50).

7:23-29.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자기 백성과 동일시하기를 시도했고, 한 히브리 노예를 괴롭히던 한 애굽인을 죽이게 되었다. 나중에, 두 히브리인 사이의 분쟁을 말리려고 했을 때, 그 두 사람은 그를 거절하고 살인자로 비난했다. 모세는 살인자로 그에게 다가오는 평판을 모면하려고 다른 땅, 즉 미디안으로 도망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거절당했다.

7:35-41. 스테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모세를 재평가하였다. 모세는 자신이 양육 받았던 것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알려준 것은 광야에서였다(7:37). 명백히, 스테반은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가리켰다. 그러나 심지어 율법, 또는 “생명의 도” (7:38), 그리고 선지자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배반하고 예배할 한 “송아지”를 만들었다(7:41).

7:44-50. “증거의 장막” (7:44)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에 의하여 설계되고 지어진 예배처로, 정착된 구조를 갖지 않았다. 그들은 모세 시대로부터 첫 정착된 예배처를 지은 솔로몬 때까지 이곳저곳으로 이동하였다. 스테반이 계속한 것같이, 그는 이사야 66:1-2를 사도행전 7:49에 인용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않는다” 것을 강조했다(7:48).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신다.

강한 메시지 폭풍(7:51-60)

고소자들은 스테반의 논쟁에서 피고인들이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에서 거듭 거듭 하나님을 거절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그의 고소자들은 그것에 다시 관계되었다. 그들은 “목이 곧은자들” (7:51)이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 같이 마음과 귀가 성령에 닫혀 있었다.

스테반의 강하나 참된 비평은 그의 고소자들을 분노하게 했고 그들이 폭도의 행동을 하게 자극했다. 스테반은,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승리와 “하나님 우편에서” (7:56)에서 다스리시는 예수환상을 보았다.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께 그러했듯이 그의 참된 증거를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학습 보조자료: 기존 견해와 관행

관계	기존 견해와 관행
친구	
친척	
동료	
이웃	

1. 클래스를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의 의자에 “예수님을 위해 기존 견해와 관행을 도전하라” 는 학습 지침서의 복사본을 놓아두라.
2. 학습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지난 학과로부터 성공적으로 적용을 실천했는지 또는 어떻게 적용을 실행하기 위해 애쓰면서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관하여 감사제목이나 기도 요청을 나누도록 인도하라.
3. 당신이 어린 아이였고 동료들의 무언의 압력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면서 클래스를 시작하라. 몇몇이 그들의 어린 시절 동료들의 무언의 압력을 나누도록 허용하라.
4. 오늘 학과에서 우리는 기존 견해와 관행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있는 어떤 사람을 증거하는 것을 클래스에서 나누라.

학습 인도

5. 이해를 돕기 위해 이 학습안내에서 학습안내와 “성경해석” 부분을 참조하라, 이 과 전체의 성경 공부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설명하라.
6. 학습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에 초점을 맞춘 학습지의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지시하라.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도행전 6:8-15를 읽게 하라.
7. 학습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아래 첫 공란에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라.
8. 사도행전 6:1-15를 토론하도록 하라. 스테반이 사도 중의 하나가 아니라 음식 분배를 돌보도록 선출된 일곱 중의 하나였음을 지적하라. 다음의 질문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당신이나 또는 당신이 아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반대를 받았던 때를 이야기 하도록 하라.

9. 학습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 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공란에 메시지라는 단어를 쓰도록 지시하라.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도행전 7:1-5를 읽게하라.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도행전 7:9-28를 읽게하라.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도행전 7:35-41를 읽게하고 다른 사람이 7:44-60을 읽게하라.

10. 다음과 같이 질문하라: 어떻게 스테반은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의 거짓 가정을 직면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직면하는 거짓 가정들을 말하는 것에 관하여 스테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11. 학습자들의 관심을 “성육신적이며 희생적 증거” 에 초점을 맞춘 학습지의 그 부분에 집중하게 하라. 자원자를 모집하여 사도행전 7:54-60을 읽게 하라.

<p>[제 7 과]</p>	<p>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성령에 민감하라</p>
<p>핵심본문 사도행전 8:26-40</p> <p>배경 사도행전 8:4-40</p>	<p>학습주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빌립은 그 질문자에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p> <p>탐구질문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p> <p>학습목표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고 순종하는 길을 생각한다.</p>

성경주해

배경 이해

신약 성경 교회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첫 단계는 예루살렘에 많은 신자들이 생겼다는 것이다 (행 1--6장). 둘째 단계는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행 1:8)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심각하게 핍박을 받게 하셔서 예루살렘을 넘어 지속적인 교회의 성장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스테반과 빌립을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다.

스테반과 빌립은 그리스도의 열두사도 중의 한 명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질서와 행정을 맡아 보도록 선출된 일곱 사람 중 일부로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운 자들이었다 (행 6장). 이 "일곱" 사람은 지혜롭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어야 했다. 스테반과 빌립은 또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았다.

교회의 핍박은 이단이라는 거짓 혐의가 스테반에게 닥쳤을 때 시작되었다 (6:11-14). 스테반은 예수에 대한 놀라운 증언으로 반응했다. 그로 인해 스테반은 돌로 맞아 죽었다. 스테반이 죽고 있던 장소에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 (8:1-3; 9:1). 사울은 후에 사도 바울이 되었다.

스테반이 죽은 뒤 그리스도인들은 강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핍박의 공포는 그들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했다. 이렇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중의 한 명이 빌립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시도록 기꺼이 순종했다.

빌립은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었다, 그곳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추문이 될 법한 일이었다. 수 백년 동안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거의 상관을 하지 않았다. 사마리아는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놓여 있다. 이 지역은 최소한 부분적으로 유대적인 곳이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저 너머 있는 존재들이었다.

빌립이 사마리아인들인 구원받았다고 보고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조사했다 (생 8:14-17).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멈추지 않았다. 복음은 곧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도 받아들여졌는데,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빌립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편한 영역을 기꺼이 넘어갔다.

본문 해석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함 (8:26-31)

8:26 - 사마리아 선교 이야기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선교 활동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초자연적 능력이 가시적으로 개입되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하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을 통해 누가는 이방지역에 대한 선교 활동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8:27-28 - 빌립의 선교대상으로 언급된 내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출신지와 직책이다. 에디오피아에서는 당시 모계(母系) 왕통을 갖고 있었으며 '간다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서 로마의 '가이사' 또는 애굽의 '바로'와 같은 것이다. 아마 그는 유대인의 총회에 들 수는 없었으나 유대교를 독실하게 믿었으므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한 절기 기간을 택하여 예루살렘에 왔던 것 같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8:29-31 - 빌립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언급되어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빌립은 내시의 읽는 소리를 통해 성경의 내용이 자신이 전하려 하는 복음의 내용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내어

성경을 읽었다. 그리고 이 내시도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 마차 속에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을 것이며 이를 빌립은 들었을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빌립으로부터 도전적인 질문을 받은 내시는 의외로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에 오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처럼 내시가 배타적인 태도가 아니라 호의적으로 빌립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은 내시가 자신의 체면에 관계없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다고 대답함으로써 자신의 겸손과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망이 높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난 받는 종 (8:32-33)

8:32-33 - 메시아의 수난에서 비유적으로 '양'을 언급한 것은 메시아가 순종의 제물임과 동시에 희생 제물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그 사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자기 백성들로부터 받지 못했다.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공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했다.

성령의 권능 (8:34-38)

8:34 - 예언서에 예언된 고난의 종이 누군지를 묻는 내시의 질문에는 매우 진지하고 정중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즉 '청컨대'(* , 데오마이 수)라는 말을 부탁을 하기 전 붙이는 '죄송하지만'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8:35 - 아마도 빌립은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의 고난과 결부시켜 가르쳤던 것 같다. 다시 말해 빌립은 사 53:7, 8이 메시아의 고난임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예수임도 밝혔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치심과 수난 및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그 내시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8:36 - 내시가 '무슨 거리낌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미 침례에 관해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빌립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침례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아마 빌립은 내시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기독교로 개종할 것을 제안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내시는 자신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을 침례받는 것으로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반문 형식의 의문문을 사용했다.

8:38 - 이 구절은 두 사람 모두 물에 들어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浸禮)를 베풀었음을 암시한다. 당시에는 오늘날 어느 교단에서 행하는 약식 세례와는 달리 침례를 행했으므로 물이 넉넉히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로 보아서 내시가 침례를 받은 장소는 단순히 오아시스의 샘이 아니라 흐르는 시내였을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 (8:39-40)

8:39-40 - '이끌어 간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르파센'은 재빨리 어떤 것을 채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하나님께서 빌립을 내시의 눈 앞에서 금방 사라지도록 하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 기적이 실제로 시공간(視空間)에서 발생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누가는 이 기적에 대해 묘사함으로써 빌립의 전도가 오직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해 주며 또한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을 부각시켜 준다. 혹자는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누가의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기쁨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지 누가의 독특한 표현법이 아니다. 내시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내시가 기뻐하며 걷는 모습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불법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의 이야기로 시작하라.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 질문하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로 했을 때, 그 교회는 어떤 위험들을 감수했을까? 반원들이 자기들의 편안한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나누게 하라.
2. 학습공과에 있는 학습주제, 들어가기, 그리고 탐구질문을 읽어라. 마크보드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방법들" 이라고 쓴 뒤에 반원들과 함께 목록을 작성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 인도

3. 사도행전 6:1-7; 8:1-7절에 근거해서 빌립의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학습공과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알아야 한다" 부분을 참조하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8:26-31절을 읽게하라. 신약시대의 지도를 사용해서 이 장소들을 확인하라:
 - * 사마리아, 빌립이 활동하고 있었던 곳
 - * 예루살렘과 관련된 사마리아 지역

- * 이 두 곳이 만나는 지역인 가자와 예루살렘 사이의 길
- * 성서 시대의 에디오피아 (학습공과 '참고' 글 "에디오피아"를 보라)

5. 질문하라,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갔던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단계에서 했던 목록에 새로운 제안들이 있다면 더하라.

6. 마크보드에 등변 (세 개의 선 길이가 모두 같은) 의 삼각형을 그려라. "성령" 이라고 가장 꼭대기에 써라. 가장 아래 부분에는 "빌립" 과 "에디오피아인" 이라고 적어라. 이와 같은 말로 그 이야기를 설명하라:

- *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증거하게 하는 원천이다.
- *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주고 예수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게 하는 일을 모두 하신다.
- *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이 종종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진다.
- * 성공적인 복음전파는 강제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령은 감동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복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원들이 삼각형이 어떻게 빌립의 경험 속에서 작용했는지 경청하는 동안 사도행전 8:32-35절을 읽어라. 학습공과 "성령은 우리의 경계들을 넘어서 이끄신다" 내용을 참조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상황 속에서 극복해야 했던 장벽들을 강조하라.

7. 사도행전 8:36-40절의 이야기를 완성하라. 학습공과 에 있는 마지막 두 섹션을 보면서 다음 질문에 답하라:

- * 새 신자에게 침례는 얼마나 중요한가?
- * 내시의 침례는 예수님의 침례와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마 3:13-16; 막 1:9-10을 보라)?
- * 비 유대인 내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왜 특별한가?
- *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와 빌립이 각각 자기의 길을 갔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
- * 성령께서는 그 다음에 빌립을 어디로 이끄셨는가?

적용 격려

8. 반원 중 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방법들" 에 기록된 목록을 읽게 하라. 반원 중 몇 사람이 다음 질문에 답하도록 유도하라, '빌립이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p style="text-align: center;">[제8과]</p>	<p style="text-align: center;">어려운 일들을 피하지 말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9:1-22, 26-28</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9:1-28</p>	<p>학습주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이었던 바울은 아나니아와 바나바의 도움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p> <p>탐구질문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가장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것같은 사람은 누구인가?</p> <p>학습목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인식한다</p>

성경주해

배경이해

사울은 초대교회가 성장할 때 가장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사울은 예수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에서 알려진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 사울은 누구인가?

사울은 소아시아 길리기아의 로마영 다소라는 도시 출신이다. 길리기아는 고급 양모와 직물로 유명했다.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적 기술은 "장막 만드는 자" (행 18:3)이었다. 그는 직물을 만들고 사용하는 숙련공이었다. 그가 거듭난 후, 이 기술은 그의 수입을 위해 사용되었다 (행 18:3; 20:34; 살전 2:9; 살후 3:8). 사울은 또한 그의 유대 종교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에 매우 진지했다 (행 11:26; 갈 1:14; 빌 3:4-6).

사울의 유대인 조상들은 그리스도가 그 도시의 상업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지

배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소로 이주해 왔었다. 후에 로마가 지배 세력이 되었을 때, 로마 시민권이 유대인들을 포함한 다소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에게 주어졌다. 사울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당시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권을 간절히 갖고 싶어했었다 (행 22:28-29).

한 유명한 대학교가 또한 다소에 있었다. 우리는 사울이 그 대학교의 학생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의 회심 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능력은 그의 뛰어난 지식과 지성을 반영한다. 사도행전 23:3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양육되었고 유명한 랍비 가말리엘 문하에서 연구하여, 유대 율법 속에서 고등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할 때는 항상 성령에 의존했다 (고전 2:1-10).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메섹과 같은 체험이 없다. 우리는 눈을 멀게하는 빛이나 하늘에서 말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으며, 회개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배경 이해

사울의 임무 (9:1-2)

9:1 -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 이 표현은 사울의 호흡이 살기와 위협의 숨소리로 들릴만큼 박해가 잔인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울의 행위가 얼마나 능동적인 행위였는지를 짐작케 한다. 그리고 이런 점에서 사울 자신은 박해 행위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과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 같다.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한 사울이(26:5) 예수를 죽이기로 음모하고 이를 실행했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눅 19:47; 20:19; 22:52; 23:10)과 같은 노선에 있었음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당시 대제사장은 칠십 인으로 구성된 의회 '산헤드린'의 의장으로서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권한 곧 사법권과 행정권을 팔레스틴 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행사할 수 있었다.

9:2 -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 박해 때(8:1-3) 예루살렘으로부터 피신해 간 유대 기독교인들과 그들에 의해 개종된 유대인들로 추정된다. 사울이 이방 지역에서 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묘사하고 있는 본 구절은 당시 대제사장이 이방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사울의 회심 (9:3-6)

9:3-4 - 본 구절은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초자연적 개입이 일어난 것에 대한 묘사이지만 그 지점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아무튼 사울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던 일행들도 사울이 경험한 그 빛을 목격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엎드러져'라는 단어 '페손'(*)은 '떨어진다', '넘어진다'의 뜻으로 쓰러지듯 엎드린 사울의 행동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반사적

이면서 두려움에 휩싸인 즉각적 반응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울에게 들려진 예수의 음성은 분명히 애정어린 음성으로 이해된다. 본절 외에 성경에서 이름을 두 번씩 불렀던 경우는 아브라함(창 22:11), 모세(출 3:4), 사무엘(삼상 3:10), 시몬(눅 22:31)을 들 수 있다. 이는 부르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나타낸다.

9:5 -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알지 못하는 음성에 대하여 사울은 '주여'(퀴리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호칭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했음이 아니다. 이는 사울이 곧이어 '당신은 누구입니까?'라고 자신을 부른 자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아마도 초자연적 어떤 힘 앞에서 나약한 인간의 의식으로부터 나온 호칭으로서 짐작된다.

나는...예수라 - 본절의 헬라어 본문에는 복음서에서 예수의 자기 선언의 한 양태인 '에고 에이미'가 언급되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출 3:14)를 70인역(LXX)이 '에고 에이미'의 문장으로 표현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예수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함으로써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기 선언을 하신 것이다.

9:6 - 본절은 사울의 소명 의식이 부활한 예수의 강권적인 능력의 부름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 준다. 한편 본절은 헬라어 본문에서 접속사 '알라'('그러나')로 시작되고 있으나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았다. 여기서 혹자는 앞절과 연관지어 '나는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여 '알라'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사울의 도전 (9:7-9).

사울은 잠시 소경이 되었고 3일 동안 아무런 음식도 먹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주께서는 사울에게 하나님께 곧 그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아나니아의 방문을 준비하셨다. 주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양떼 중의 한 마리를 위해 목자로서 사울을 돌보고 계셨다 (마 18:12-14; 눅 15). 이 날들은 사울의 영적 회복과 준비를 위한 날들이었다. 사울은 비록 그의 미래가 불확실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것을 도전받았다.

사울의 소명 (9:10-22)

9:10-14 - '제자'로 언급되는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1; 23:2). 이 이름의 히브리적 본래 의미는 '여호와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간과될 수 없는 사실은 사울의 악명이이방 지역에까지 알려져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잔악하고 반(反) 기독교적인 사울의 행위에 대한 강조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악명 높은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예수의 지시는 충격적인 사실로 이해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사울의 회심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임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기독교인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다. 누가는 기독교인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의 지루함을 피할뿐 더러 기독교인에 대한 당시의 다양한 이해를 소개하고 있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것은 그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한다(롬 10:13).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도를 의미한다.

9:15-16 - 하나님의 성전에 구별된 거룩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울을 선택하셨다 (롬 1:1; 갈 1:15). 사울은 이방인들, 왕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의 그리스도인 순례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길이였다 (행 20:22-23).

9:17 - 아나니아는 예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방문하여 안수하고는 '형제'라는 호칭으로 사울을 부르고 있다. 그 의미는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의 반 기독교적인 행위로 인해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다(13, 14절). 따라서 여기서 '형제'라는 호칭은 사울의 모든 악한 과거가 용서되고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선언하는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성령으로 총만하게 하신다" 는 아나니아의 이 말은 사울의 선교 활동이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임과 사울에게도 사도적 능력이 부여됨 그리고 그가 참된 기독교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행 22:14-16을 보라)

9:18-19 - 사울이 다시 보게 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가 보지 못하게 된 원인이 제거됨을 묘사하고 있다. '강건하여지니라'라는 단어는 사울의 변화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회복되었다는 것임을 암시한다 (요 4:13, 31-32을 보라_.

9:20-22 -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곧 자기의 회심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고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하나님 아들" 이심을 선포했다. 여기서 누가는 사울의 설교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을 언급하면서 사울의 과거를 언급함으로 사울의 회심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청중들의 놀람은 사울의 회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반응, 즉 사울에대한 반감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23절의 언급은 유대인들이 사울을 배교자, 배신자로 여겼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 사울의 일관된 메시지의 중심이라고전 1:23). 사울의 설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여러가지의 자료들을 모아 논증적으로 예수의 그리스도됨을 가르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갑작스런 사울의 회심과 그의 설교 내용은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사울의 일행들 (9:26-28)

9:26-27 - 사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친구들을 떠나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은 그를 배신자로 보았고 (행 9:23),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고, 바나바 ("격려의 아들")는 예루살렘에서 친구가 되어 주었다 (행 4:36).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했고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의 소명을 설명했다. 사울은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다.

9:28. 궁극적으로, 사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교제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았다.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얼마 후, 사울은 그의 관심을 이방인의 회심으로 온전히 돌렸다 (13:46-48).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원들에게 이 질문을 제시하라.

- *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당신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인의 커다란 적들인가?
- * 미국에서 어떤 영향력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가?
- * 당신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은가?

2. 학습공과에서 학습주제와 들어가기를 읽어라.

학습 인도

3. 사도행전 7:58-8:3에서 회심 이전의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서 시작하라. 학습공과 섹션 "바울의 회심의 기적"과 이 인도자 지침서 "배경 이해" 부분을 참조해서 부가적인 통찰을 제시하라. 바울은 고등 종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며 그의 믿음에 열정적이었고, 그의 행동에 진실했다는 것,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던 것을 주목하라.

4. 사도행전 9:1-8절을 반원들이 읽도록 요청하라.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여행했던 곳을 지도로 확인하라. 이 일이 있었던 곳이 다메섹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살펴보라. "바울의 회심의 기적"에 있는 다음의 사실들을 강조하라.

- *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멸절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 * 바울의 체험은 다른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목소리를 들었다는 것 속에서 사실이 확인된다 (행 9:7; 22:9).
- * 눈이 멀었던 날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도록 해주었다.
- *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삶도 - 아무리 고집스러운 사람일지라도 - 온전히 개입하셔서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다.

5. 두 사람이 대화식으로 사도행전 9:9-19절을 읽게하라. 한 사람은 나레이션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인용된 말씀을 읽게하라. 다음 질문을 사용해서 반원들이 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라:

- * 13-14절에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아나니아의 처음 반응은 무엇이었나?
- * 15-16절에 있는 구절에서 바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가?

* 17-19절로부터 아나니아를 묘사하라.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6. 한 사람이 사도행전 9:20-22, 26-28을 읽도록 하고 반원들은 바울의 회심에 대한 세 가지 반응들을 주목하게 하라.

*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 바울이 받아들여지도록 한 바나바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적용 격려

7. 학습공과에 있는 참고 글 "회심 체험"을 설명하라. 학습공과의 질문 1을 함께 풀어나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체험을 목상할 때, 그의 체험의 어떤 요소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와 비슷한가?" 반원 중 몇 사람이 자신의 회심 체험을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하라. 바울이 불신자들 - 심지어 왕들이나 총독들까지 -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종종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 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행 22:26).

8. 다음과 같이 진술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리를 갖고 계신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지도자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같은 개인적인 증인들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나바와 같이 멘토와 격려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심지어 가장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 오는 그들의 역할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반원들이 기도하게 하라.

<p style="text-align: center;">[제9과]</p>	<p style="text-align: center;">모든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장벽들을 뛰어 넘어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11:1-26</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10:1—11:26</p>	<p>학습주제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베드로와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문화적, 종교적인 장벽들을 뛰어 넘었다.</p> <p>탐구질문 당신과 당신의 교회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장벽들을 어떻게 부숴뜨리고 극복할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뛰어 넘도록 도전하시는 장벽들을 인식하기</p>

성경 주해

배경 이해

사도행전은 1세기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미약한 그 시작이 어떻게 성도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는지 말해준다. 이 놀라운 성장은 하루 밤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큰 장애물 없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박해, 자연재해, 기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이교도적 영향들은 교회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초대 교회의 제자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내부로부터 왔다.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편견은 초대 교회의 성장과 영향력을 파괴할 수도 있었다.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해야만 했다.

본문 해석

사도행전 11:1-16절은 사도행전 10장에 묘사된 사건들의 요약이다.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상술하는 것이다.

고넬료의 환상 (10:1-8)

3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는 진술은 할례받은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면서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이방 유대교인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고넬료가 경험한 이 환상은 9:10에서 언급된 아나니아의 경험과 비슷하게 묘사되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본 고넬료의 반응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것이었다. 고넬료는 주의 사자를 '주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또는 예수에 대한 호칭이 아니다. 다만 자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초자연적 사건 앞에 당황하며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였을 것이다(9:5). 고넬료는 기도 중이었으므로 환상 가운데서 실재를 보듯 천사와 대면했던 것이다. 사자의 지시에 대해 고넬료는 즉각적이고 정중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고넬료의 행위를 매우 진지하고 정중하게 묘사하려 했다.

베드로의 환상 (10:9-23)

베드로가 기도하러간 지붕으로 올라간 시각은 낮 열 두 시로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과 상관없다. 베드로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대표적 생각을 나타낸 것 뿐이다. 즉 그의 대답은 생활과 종교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에까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베드로가 "결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대답은 주의 명령을 거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이 얼마만큼 철저한 율법적 생활인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은 모든 유대인들의 대답으로 상징될 수 있다(겔 4:14). 본 구절은 당시 속되다고 인식되던 것을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속되지 않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성령은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유없이 무조건 두말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암시한다.

베드로와 고넬료 (10:24-48)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고넬료와의 약속을 지켰고, 그 결과는 기적적인 것이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 지니고 있던 배타적 우월감을 버리고 15절에서 지시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방인을 한 형제로 용납하였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34절). 이 구절은 신 10:17의 인용구로 짐작된다. 여기서 언급된 '외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관습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상징한다.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형적 구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여기서 언급된 '외모'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과 종교적 제의와 관습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형식적인 경건주의를 상징한다. 더 나아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외형적 구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이방인들이었다고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고 기독교인의 어떤 집회에 참여했다는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성령은 인간이 갖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활동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로써 이방인에 대한 선교의 정당성이 확실하게 제시되었다. 이방인과 사도가 함께 자고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함으로써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으며 유대인의 의식절차를 밟지 않고 서로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은혜가 아닌 의식에 헌신 (11:1-3)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다는 소식은 금방 퍼졌다.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였던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 할례자들은 단순히 문제점을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단죄(斷罪)하여 비난하는 차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할례자들에 의해 제기된 문제는 이방인으로 언급되는 무할례자와의 식사에 관한 것이다. 한편 할례자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한 것만을 이유로

베드로를 할난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본절 이후 계속된 베드로의 변론 내용은 이방인에 대한 전도의 타당성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구절의 표현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한 사실에 대한 것을 비난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베드로의 환상의 의미 (11:4-10)

베드로는 그가 고넬료를 만나서 있었던 일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반응했다.

11:4.- 비난하여 문제를 제기해 오는 할례자들을 대하는 베드로의 자세는 매우 장중(莊重)하고 권위있는 분위기를 풍겨주고 있다. 특히 본 구절에서 사용된 '설명하여'라는 단어 '여세티데토'는 '선포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써 어떤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분명하게 밝혀 선언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암시되어 있다.

11:7-8 - "내게 이르되"는 구절이 베드로의 직접적인 진술인 반면 10:13은 누가의 간접적인 묘사이다.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는 10:14의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니다'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내용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11:9-10. - 하늘로부터 내게 대답하되 - 10:15에서 이 표현은 생략되어 있다. 이는 베드로 자신에게 주어진 응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성명해 주며 동시에 그 응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11:11-14)

베드로는 그가 기도하고 있는 집에 고넬료의 친구들이 도착했었던 것을 상술할 때 이러한 일들의

섭리적 본질을 강조했다. 그것이 정말 현실로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 것에 대한 모든 편견과 불편함을 벗어 버렸다 (10:23).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랴에 "아무 의심말고 함께가라"고 지시했다. 베드로는 여섯 명의 유대인 신자들을 데리고 갔다. 의심할 것 없이 지지와 확증을 위한 것이었다.

편견으로부터 관계형성으로 (11:15-17)

11:15-16. - 고넬료와 그의 친척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베드로와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림했을 때 일어났던 것과 똑같았다. 베드로와 같이 온 여섯 명의 일행은 똑같은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내려졌음을 목도했다.

11:17. -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막겠느냐?" 로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침례를 받기에 "거리낌"이 있느냐 (8:36)에 사용된 단어이며 또한 베드로가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10:47)고 말했던 단어이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이방인들의 회심과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침례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이 구원을 체험한 후에 행해졌음을 주목하라. 신자의 침례는 성경적인 것이다.

무너진 장벽들 (11:18)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슬프게도 베드로에게 문제 삼았던 사람들에게 의한 이 반응이 그 뒤에 일어난 같은 문제를 종식시키지는 못했다. 대부분의 대중들의 반응이 그렇듯이 이 일 뒤의 사도행전에서의 반응들은 여전히 혼합되어 있다 (행 15장을 보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의 열정 (11:19-26)

11:19-21. - 본 구절은 스테반의 순교 후(7:54, 60) 교회에 닥친 박해(8:1-4)를 가리키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안디옥은 외국 선교의 전진기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13:1-3)처음으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던 곳이며 (11:26)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에 관한 논쟁이 처음있었던 곳이다(15:1,2;갈 2:11-21).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믿고 돌아왔다'는 표현은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11:22-24. - 지방 교회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듣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를 파견하게 된다. 사마리아에 파견되었던 대표는 요한과 베드로였으나 여기서는 바나바가 파견된다. 바나바의 안디옥 방문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교회의 확장을 가속화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나바의 착함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때문임을 누가는 언급하고 있다.

11:25-26. - 9:30에서 사울이 다소로 보내진 사실이 언급된 후 처음으로 사울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뚜렷한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 혼자 이끌 수 없었고, 대상이 이방인이라는 점에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갈 1:16) 사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바나바의 모습은 9:27의 내용과 함께 사울을 초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로 등장시키는 데 크게 공헌한 인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신약에서 세 번 언급되는(26:28; 뱀전 4:16) 이 말은 비기독교인에 의해 붙여졌다는 의미에서 경멸적인 별명이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본문에서 누가가 소개하는 어투를 보면 그렇기 불명예스러운 칭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The Help" 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라. 이 영화는 시민권 법이 통과되기 전에 특권층 가족들을 위한 도우미로서 일했던 아프리카 여인들의 경험을 통해 두 갈래로 나뉘어졌던 남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준다. 질문하라, 무엇이 한 인종, 혹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하게 하는가? "그들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떤 장벽들이 무너져야 하는가?

2.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장벽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라. 학습 공과에 있는 학습 목표와 탐구 질문을 참조하라.

학습 인도

3.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했던 두 개의 큰 질문들을 마크보드에 써라

(학습공과의 사도행전 소개 부분을 보라).

- (1) 이방인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는가?
- (2)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실재 서로 식탁교제를 할 수 있었는가?

4. 신약성경 시대의 지도 위에서 오늘 수업의 주요 지역을 찾아보라: (1) 예루살렘 -- 교회 생활과 권위의 중심; (2) 사마리아 해변의 가이사랴 -- 고넬료의 집,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백부장; 그리고 (3) 시리아 안디옥 -- 새로운 교회가 구시대의 장벽들을 무너뜨린 곳

5.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1-3절을 읽게 하라. 질문하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한 베드로에 대한 주요 비판은 무엇이었는가? 당신은 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이방인들의 회심보다 더 궁금했다고 생각하는가? 학습공과 섹션 "두 개의 큰 질문들" 로부터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라.

6. 반원들에게 사도행전 11:4-6절에서 성령이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세어 보도록 하라. 마크보드에 "성령"이라고 써라. 5절은 주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 말해준다. 마크보드에 "비전과 환상" 이라고 써라. 13절은 고넬료에 방문한 천사에 대해서 언급한다. 보드에 "천사"라고 써라. 질문하라, 당신은 왜 천국이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그렇게 연루되었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장벽들을 너머서 복음을 전할 때 실재적이고 힘있게 역사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

7. 사도행전 11:15-18절에 있는 성공적인 결과를 읽어라. 이 지계석은 누가 전체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라: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온다. 반원들에게 그날 극복했던 모든 장벽들을 열거하도록 하라 (전통, 편견, 교만, 두려움, 언어, 그리고 문화, 그외..)

8. 사도행전 11:19-26절의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하라. (도움을 위해 학습공과에 있는 "계속해서 장벽들을 넘어가기" 부분을 참조하라.) 이 질문들을 사용해서 그 구절을 연구하라:

- *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 19절에 있는 그들의 선교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 * 20절에서 그들의 초점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 * 왜 안디옥 교회는 장벽들을 극복하는 것이 좀 더 쉬웠다고 생각하는가?
- * 조사하는 일에 바나바를 선택한 것에 하나님의 손길을 당신은 어떻게 보는가?

적용 격려

9. 안디옥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을 듣게 된 곳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학습공과 끝에 나오는 '질문' 6번을 읽어라 ("만일 교인들이 오늘날 이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를까?") 질문하라,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때때로 부정적인 암시를 주게 되는가? 교회들, 그리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는 것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올해 우리 교회가 행했던 장벽을 무너뜨리는 사역들은 무엇이었는가?

<p>[제 10 과]</p>	<p style="text-align: center;">당신이 있는 영역을 뛰어 넘어 예수의 증인이 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13:1-5, 13-14, 42-52</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13장</p>	<p>학습주제 안디옥의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저하지 않고 선교사들을 보내는 일에 순종했고 바나바와 바울은 담대히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다.</p> <p>탐구질문 오늘날 우리는 선교사가 되고 보내는 일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당신은 갈 준비가, 혹은 보낼 준비가 되어있는가?</p> <p>학습목표 보내는 일이든 직접 가는 일이든 선교에 대한 나의 참여를 평가하기</p>

성경주해

배경이해

사도행전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구절은 사도행전 1:8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처음 성도들을 듣고자 하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게함으로써 응답되었다. 곧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에 반응했는가? 그들은 그들의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적용들을 이해했는가? 사도행전의 남은 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단계를 수행했는지 묘사한다. 이 단계는 여전히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선교사들을 보내고 가는 명령은 순종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의 친숙한 환경을 떠나서 복음을 들고 먼 곳으로 가라는 소명을 묘사한다. 성령은 명확하게 이 두 사람에게 짐을 싸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소명을 주셨다. 이 소명은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 일어났다.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교회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그들은 기쁘게 그들의 최고를 보냈고 이 선교 여행에 필요되는 많은 것들을 제공했다. 이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이었다.

배경 이해

교회의 지도자들 (13:1)

여기서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언급되는 점으로 보아 안디옥 교회는 11:19에 언급될 당시보다 많은 성장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여기서 언급된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직분자들로 보인다.

한편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그룹 즉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바나바를 맨 처음에 언급하고 사울을 맨 나중에 언급하고 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중심 서열 내지 신앙의 연륜에 따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바나바를 비롯하여 시므온, 루기오는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이전부터 직분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11:20). 니게르라는 말이 검다는 뜻이라고 생각할 때 시므온은 아프리카 출신으로 볼 수 있다.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 '젓동생'이란 같은 젓을 먹고 자란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친한 친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표현이 헤롯과 마나엔이 서로 매우 친밀한 사이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성령의 부르심 (13:2-3)

성령의 지시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임하였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앞절에서 언급한 바나바 외에 4명이다. 성령의 지시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선교를 위한 사역자들로 구별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가 되며 성령의 지시로 인해 사울은 사도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여기서 언급되는 금식 기도가 2절에서 시작되었던 금식기도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2절의 금식기도가 끝난 다음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기 위하여 일종의 임명 예배를 다시 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두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특별히 정해진 예배가 있었던 것임은 틀림없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按手)를 베풀고 선교사로 파송한 주체가 누구인지 본절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은 성령의 지시로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의 대표자로 혹은 사도로 인정하는 의식을 집행했음이 분명하다.

교회가 세워지는 양식 (13:4-5)

13:4. - 바나바와 사울의 일행이 실루기아(Seleucia)로 내려간 것은 배를타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안디옥은 내륙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실루기아를 외항(外港)으로 삼아야 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 서쪽 약 26k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구브로는 사울과 동행한 바나바의 고향이고(4:36) 안디옥 교회구성원의 일부가 이곳 출신의 사람들이었다(11:20). 따라서 첫 선교지로 구브로(Cyprus)가 선택된 것은 바나바와 구브로 출신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3:5. - 살라미는 구브로섬 동쪽에 위치한 해안도시이다. B.C. 58년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지중해를 통한 해상 무역으로 인해 상업 도시로 커갔다. 그러나 A.D. 116년 트라야누스(Trajanus) 황제에 의해 파괴되었다. 유대인의 여러회당에서 전할새 - 살라미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여 회당도 여러 곳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전도 여행을 떠났지만 실제로 전도는 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전도 대상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요한은 12:25에서 언급된 마가 요한을 가리킨다. 또한 요한은 두사람의 여행 경비를 관리하는 등 전도 여행 중 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왔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함 (13:13-41)

13:13-14. - 구브로 섬을 떠나 바울 일행이 두번째로 찾은 밤빌리아는 지중해 북단에 있는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에 접한 지역이다. 바울은 돌아오는 길에서 다시 이곳을 들르게 된다(14:25). 이곳에서의 바울 일행의 선교 행적에 관한 언급은 없다. 아마 별다른 성과가 없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동행하여(12:25) 그들을 도우며 따라왔던(5절) 마가 요한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만 누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거행되는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브로나 이곳에서도 바울 일행이 회당을 먼저 찾은것은 이방땅에서 동쪽에 대한 친밀감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방 선교 이전에 유대인에 대한 방문이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15-41. - 바울이 '죄사함'을 복음의 핵심으로 선포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죄'의 문제가 신앙의 억압적 요소로 크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遺傳)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했으며 그 중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죄인으로 판명되므로 죄문제로 인해 항상 억압당하는 신앙 생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예수에 의한 죄사함의 선포는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체험했던 사실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초대교회의 교리의 핵심이었다. 41절에서 인용되는 구절은 합 1:5로서 바울은 이문구를 인용하여 유대인들이 배타적으로 우월감에 빠진 선민의식(選民意識)으로 인해 버림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선포함 (13:42-52)

13:42-44. -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혼합된 반응을 일으켰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13:43)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음 안식일에 와서 그들의 가르침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 "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13:44).

13:45-47. - 여기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구성원들로 바리새파의 유전을 철저히 추종하는 유대인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회당의 핵심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가 자기 공동체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울의 설교에 대해 무조건 비방하는 자세를 취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비방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함에 있어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을 권위있게 묘사하기 위해 '담대히 말하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은 다시 자신의 이방 선교의 정당성을 구약성경을 인용하여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임을 선포하여 그 사역의 신적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47절에서 인용된 이사야서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다. 하지만 바울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예언하신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9:15) 이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적절히 적용될 수 있다 하겠다.

13:48. -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연루된다.

13:49-52. - 주위 말씀이 퍼지니라 - '퍼지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로 '계속 퍼지고 있었다'를 의미한다. 이는 주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져가는것을 묘사한다. 추방당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예수의 말씀(마 10:14)을 그대로 실천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부터 추방당하여 그곳에서 동쪽으로 약 120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이고니온(Iconium)으로 떠나게 된다. 여기서 언급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의 거주자들을 가리킨다. 누가는 그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로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았음을 보여줌과 동시에(2:4;4:31;10:44) 기독교 공동체가 융성해 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방법들을 써서 붙여라. 만일 이것을 위

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 교회의 사역자에게 물어보라. 또한 지역 선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선교에 활발한 당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붙여라.

2.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이에 네 개의 세로 줄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써라,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그리고 "나의 땅끝." 이 종이를 복사해서 반원들에게 나눠주라.

3. 사도행전 1:8절을 당신이 읽는동안 반원들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지역들에 주목하게 하라. 사도행전 13장에 대한 오늘의 수업은 이 구절의 명령을 실천한 최초의 선교사들을 보여준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과 유대는 친근한 영역, 사마리아는 불편한 영역, 그리고 땅끝은 완전히 떨어진 영역의 한 예라는 것을 제시하라.

4. 당신에게 있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라. 예를 들면, 당신의 예루살렘은 당신이 일하는 장소, 그리고 당신의 사마리아는 노숙자 시설에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원들에게 그들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 어디인지 질문하라. 그들에게 나누어준 종이에 대답을 쓰게 하라. 한 두명 나눌수 있도록 하라.

5.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 인도

6. 한 사람이 사도행전 13:1-5절을 읽게라하. 학습공과에 있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섹션을 요약하라. 이 구절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 부분을 참조해서 더 깊이 설명하라.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라. 학습공과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질문 4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당신의 교회의 개인적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은 무엇인가?" 를 함께 나누라.

7. 학습공과에 있는 참고 글 "우리 교회와 선교" 부분을 참조하라. 반원들에게 그들의 교회가 그들이 익숙한 지역 (예루살렘)과 전혀 모르는 지역에 상관 없이 어떻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거나 혹은 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하라.

8. 한 사람이 사도행전 13:13-14, 42-45절을 읽게하라. 이 선교사들이 사도행전 1:8절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학습공과 "헌신, 신학, 그리고 상식" 섹션을 요약하라. 이 구절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의 내용을 참조해서 좀더 깊이 설명하라. 당신의 반원 중에서 선교적 일에 대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라

9. 한 사람이 사도행전 13:46-52절을 읽게하라.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장벽들을 넘어가기" 부분을 요약하라. 한 사람이 52절을 다시 한번 읽게하고, 왜 그들이 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라.

10. 학습공과 마지막 섹션 "우리의 반응" 부분을 요약하라.

적용격려

11. 질문하라:

- a.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선교지로 파송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일들을 준비하겠는가?
- b. 학습공과에 있는 질문중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가?" 를 함께 하라.
- c.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지로 부르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당신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 d. 당신은 현재의 삶에서 보내는 보내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아니면 돌아 하고 있는가? 돌아 하고 있지 않은가?

<p>[제 11 과]</p>	<p>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p>
<p>핵심본문 사도행전 15:1-29</p> <p>배경 사도행전 15:1-35</p>	<p>학습주제 교회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구원과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에 대하여 비본질적인 인간의 요구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그것이 관습이든 혹은 신념이든, 예수님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가로 막게 하고있는가?</p> <p>학습목표 구원과 사람들과 관계형성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인간의 요구가 아닌 예수님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기</p>

성경주해

배경이해

사도행전 15장에서 발견되는 이슈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질에 있어서는 연합,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

초대 교회는 복음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에 봉착했다.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그의 제자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땅끝까지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이후, 1세기 교회는 예루살렘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먼 곳까지 퍼져나가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복음은 이방 땅에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반인의 귀와 마음에까지 전해졌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놀라운 보고들을 안고 그들의 첫번째 여행에서 돌아왔다. 그 위기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들은 먼저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는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로 영접할 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외 해야될 일들이 있는가?

배경 이해

분열 (15:1-5)

15:1. - 문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고 유대주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할례 의식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으며 그외 유대주의 체계에 있는 모든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들로서 안디옥에 왔던 유대 지역 출신으로 분류한다.

15:2-5. -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파 기독교인들 사이의 논쟁은 매우 격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 생겨난 이방 기독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11:2에서도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 할례주의자들이 비난하고 도전해 왔음을 보여준 적이 있다. 이 문제는 기독교의 이방 선교와 함께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교리적 문제이기에 모든 교회가 함께 의논하여 해결해야만 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에 속한 몇 사람의 성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중에 디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갈2:1,3).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리새파 출신 개종자들도 있었다는 점은 기독교의 세력이 상당히 확장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선교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유대교적 기독교 운동의 핵심 인물이었을 것이며 1절에서 언급된 '어떤 사람들'도 이들이 파송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되는 할례에 대한 주장이 1절에서 언급된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논쟁 (15:6-18)

베드로는 얼마 전에 경험했었던 것에 관하여 말했다 (행 15:6-11). 바나바와 바울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누었다 (15:12). 야고보는 이 일들이 앞으로 교회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논쟁을 끝맺었다.

15:7-11. - 매우 긴 시간의 토론 속에서 언급된 발언자는 베드로와 야고보(13절) 두 사람 뿐이다.

이를 미루어 베드로와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역할을(갈2:9)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베드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함을 진술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고넬료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10:44-47의 내용과 관계가 있다.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사건을 두고 할례자들이 공격해 왔을 때에도(11:2)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이 성령받은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그들을 잠잠케 한 바가 있다(11:18).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전통이나 민족에 의한 차별을 통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 의식이나 우월감(優越感)은 지양되어야 한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것이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사상은 바울의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롬1:16;3:30;5:15;갈2:14-16;엡2:14).

15:12. - 바나바와 바울은 여기서도 4절에서 언급한 바처럼 자신들의 이방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임을 증언하고 있다. 표적과 기사 -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언급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사건이었는데 아마 14:3,8-10에서 나타난 기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15:13-18. - 여기서 언급된 야고보는 주의 형제(마13:55)를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것 같다. 야고보의 인용 암9:11,12 "다윗의...일으키리니"는 아모스의 예언을 베드로의 연설과 접목시키면서 아모스가 예언한 '그 날'이 바로 지금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야고보는 허물어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고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낸다는 아모스의 예언을 유대주의의 배타적 세계관이 무너지고 메시아에 의해 재건된 세계관으로 전환됨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했다. 17절의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게 되는 목적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여 야고보는 이방인들의 기독교인됨이 구약의 예언 성취임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이방 선교의 정당성이 구약의 예언(豫言)을 통해 입증된 셈이다

결정 (15:19-29)

15:19. - 야고보는 분명하게 베드로, 바나바, 그리고 바울 편에 섰다. 그는 한 가지를 제시했다. 유대인 신자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당황시키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어떤 것들을 피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15:20. -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삶의 습관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네 가지의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즉, "우상들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의미한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관한 논쟁은 이방 선교 과정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 중의 하나였다. 예루살렘 총회는 우상의 음식에 대해 부정

적인 결론을 내렸으나 고전8:1-13; 10:27,28; 갈2:11-14에서 바울은 각자의 양심에 맡김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입장을 취했다. 이 부분의 권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식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빛나는 신앙을 경계하는데 있다.

고대 세계에서는 우상 숭배는 음행과 깊은 관련이 있었는데 이는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례 의식과 신전의 사제들의 일에 음행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음행을 금지시킨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가지의 음행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 - 이는 이미 구약에서 금지된 것이다(창9:4; 레17:14; 신12:16,23). 여기서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구약에서 피를 먹지 못하게 규정한 것은 피가 생명을 뜻하기 때문이다(레17:11).

15:21. - "이는 예로부터 어느 도시에서나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 안식일마다 여러 회당에서 모세의 글을 읽기 때문이라, 하더라." 야고보의 결론을 맺는 이 진술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으며 그곳에서 유대인 교사들이 가르쳤다. 그렇게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 아니므로 이방인 개종자들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네 가지 조항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가 이 사실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 권면 조항들이 지닌 의미에 대해 이방인 개종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회당 교사들에게 배우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15:22-29. - 예루살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두 명의 지도자들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대와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서신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편지를 썼다. 이 서신은 이방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할례와 같은 유대적 율법의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이 필요 없음을 진술하는 것이었다. 그 서신은 더 나아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아무런 거리낌이 교체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금해야 할 네 가지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탐구질문의 질문을 하라, "우리는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그것이 관습이든 혹은 신념이든, 예수님과 그 은혜에 초점을 맞추는 일을 가로 막게 하고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반원들의 반응을 유도하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예수님과 그의 은혜 이외의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또한 "왜"에 대해서도 대답하도록 질문하라.

2.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 인도

3. 당신이 직접 사도행전 15:1-5절을 읽거나 혹은 반원 중 한 사람이 읽게하라. "바리새파" 에 대한 15:5절을 언급함으로써 15:1절을 설명하라. 학습공과 섹션 "갈등 (15:1-5)" 에 있는 두 번째 단락을 참조하라. 이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를 사용해서 15:1-5절을 설명하라. 질문하라, 오늘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반원 중 한 사람이 15:6-12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 섹션 "대화 (15:6-12)" 부분의 내용과 이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 주해" 내용을 참조해서 이 구절들을 더 깊이 공부하라. 8-11절을 다시 읽어라. 이 구절들에 대한 반원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도록 하라. 질문하라, 이 구절의 말씀들이 오늘날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사도행전 15:13-21절을 읽어라. 이 구절들을 학습 공과 "결론 (15:13-21)" 섹션의 내용과 이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 주해"의 내용을 참조해서 설명하라.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라: 하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할례와 같은 의식들이나 행동들을 더하는 것; 또 하나는 전통으로 인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예루살렘 회의가 이방인들이 삼가해야 할 행동들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을 때 그것은 구원에 관해 비본질적인 일들을 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라.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교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6. 반원 중 한 사람이 15:22-29절을 읽게하라. 학습공과 "대화" 의 주된 요점들에 대해서 말하라. 공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적용 및 실천" 을 강조함으로써 공부를 마무리 하라.

적용 격려

8. 학습공과에 있는 질문 3, 4, 그리고 5를 사용해서 수업을 요약하고 적용하라.

9.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은 것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에 초점을 맞추라.

10.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제 12 과]</p>	<p style="text-align: center;">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16:25-34; 17:1-4, 16-34</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15:36-17:34</p>	<p>학습주제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와 배경에 적합한 방법들을 관련 시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나누었다.</p> <p>탐구질문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가?</p> <p>학습목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나 자신을 헌신한다.</p>

성경 주해

배경이해

"주요 임무를 시행하라." 로이 피쉬(Roy Fish) 박사의 신학 대학원 사무실에 있던 그 장식패는 그분이 나의 신학교 교수였고 내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나의 눈을 사로잡았다. 피쉬 박사의 가르침의 영역 (전도학)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습관적으로 말하는 그의 헌신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싸인의 의미에 관해서 의심할 것이 없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 (롬 1:16)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 - 베드로, 바울, 그리고 야고보를 포함해서 - 성경과 성령의 도움으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것 (대표적으로 할례 의식)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주요 임무를 시행"했다.

예루살렘 회의의 언덕 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소위 1세기의 최초 선교사 동역자들이었는데 (행 13:1--14:28), 마가 요한의 일로 서로 갈라졌다 (15:39).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다 (15:40-41). 오늘 수업은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오늘날 우리에게 2차 선교 여행으로 알려진 것에 온전히 연루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15:36-18:22).

배경 이해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함 (16:25-34)

16:6-13. - 바울이 보았던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환상임에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양의 짐승들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나 사람을 보이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 담지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빌립보 도시는 B.C.360년경 마게도나의 필립 2세에 의해 이름이 크레니데스('샘'이라는 뜻)에서 빌립보로 바뀌었다.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 도착한 후 첫 안식일에 지역 회당을 방문하여 가급적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일반적 관례(慣例)였다. 하지만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하나의 회당에는 최소한 10명의 남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자들만 언급되는 점으로 보아 이곳의 '기도처'는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곳으로 추측된다.

16:14-24. - 빌립보에서 그들의 처음 사역은 열매가 좋았다.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이 침례를 받게 되었다 (16:15). 귀신들렸다가 구원받은 소녀의 회심에 대해 본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 소녀는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 의사 누가, 직업 군인 간수 등과 함께 빌립보 초기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귀신들린 여종을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은 바울이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점을 내세워 인종적 편견을 부추겼으며 또한 로마 제국내에 공공 평화를 해치고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몰아붙였다(왕상18:17; 19:40; 24:5). 바울과 실라는 선한 일을 하고도 정식 재판조차 받지 않은채 심한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감수해야 할 공통인지도 모른다.

16:25-27. - "밤중쯤 되어...찬미하매"는 고난 중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롬5:3; 약1:2; 벘전5:6,7). 이 내용은 기적적인 구출을 바라는 간구보다는 고난에 대한 신앙의 승리를 보여주는 전형으로서 기록된 것이다(Neil).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됨으로써, 간수들은 바울 일행의 찬송과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16:28-34. - 이 시점에서 바울은 죄수들이 여전히 제 자리에 있다고 - 그 자체가 기적이었다! - 간수에게 주장하면서 끼어들었다 (16:28). 간수는 자신이 착고에 채우며 고문했던 자들 앞에 이제 옆드렸다. 이제야 비로소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능력있는 사자임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벨료가 베드로 앞에 옆드려 존경의 뜻을 표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10:25).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본절은 초대 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대주제였다(2:38, 39; 8:12; 10:43; 13:38,39). 동시에 이 말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믿음이란 항상 주 예수께 신뢰와 의탁을 두는 것을 뜻한다. 간수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내나 아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 그가 자기의 인격으로 믿어야 했던 것처럼 그 식구들도 각자의 인격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함 (17:1-4)

16:35-17:1a -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은 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에게 간청하여 그들의 도시를 떠나달라고 했다 (16:39).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취한 행위는 심각한 위법 행위였고, 이것이 상부 기관에 보고되면 충분한 문책 사유가 될 것이 분명했으므로 두려워 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내세운 물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했겠지만 새로 탄생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복음에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구로 사용할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빌1:18).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떠난 것은 꼭 상관들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들은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완수하여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한 다른 곳에서는 그들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16:40).

17:1b-2a. -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바울은 그의 습관에 따라 유대인 회당과 관계를 형성했다 (17:1b-2a; see 13:5, 14; 14:1; 17:10, 17; 18:4; 19:8; see also Luke 4:16). 바울이 회당을 다른 곳보다 먼저 찾은 이유는 회당에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항상 우선적(優先的)인 일로 유념하고 있었던 것이다(롬 16:2:9,10).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단 한번도 성경을 떠나서 가르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17:2b-4. - 바울은 3주 이상 그곳에서 체류하며 회당에서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을 때는 거리나 그밖의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이다. 바울 설교의 중심은 대개가 '증거와 선포'의 형태였다. 그는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부활을 해석하여 선포하였으며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증거하였다. 이러한 증거와 선포는 13:16이하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바울의 설교 끝에는 늘 권고가 뒤따른다. 여기서 바울의 권고로 많은 회심자들이 생긴다. '경건한 헬라인들'을 가리킨다. 여기서 20:4에 언급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귀부인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부인들로서 당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로 짐작된다.

17:5-15. - 회당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포용했다면 스스로 만족해하는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 뿐만 아니라 바울 자체를 거부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자 유대인들은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그 중 하나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소란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罵倒)하는 것이었다. 유대인들은 모의 끝에 가장 큰 죄인 반역죄를 뒤집어씌웠다. 그들은 바울의 설교 중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 것을 빌미로 로마에 반역하여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임금을 세웠다고 모함했을지도 모른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에게 반역했다는 소리가 다른 무리에게 전해지고 읍장들에게 고해지자 이 소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야손과 그 일행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었으며 그

들을 위해 증언해 줄 바울과 실라도 그곳에 없어서 읍장들의 처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7:5-9). 읍장들이 보석금을 받고 조건부적으로 야손의 일행을 석방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바울일행의 데살로니가 체류는 양측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야손이 읍장들에게 끌려갔을 때 아마 바울일행은 데살로니가의 어느 비밀장소에 숨어 있었을 것이고 낮보다는 다소 안전한 밤이 되어서 소수의 새로운 개심자들의 길 안내로 데살로니가를 떠날수 있었을 것이다 (17:10).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베뢰아 도시 안에 안전하게 거할 곳이 없어진 바울은 그곳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베뢰아를 떠난다 (17:14). 바울이 다른 곳을 두고 하필 아덴으로 갔던 이유는 이곳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바울은 마게도냐의 대부분을 여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교장소를 택해야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아덴을 선택해 그곳을 찾아갔던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가장 좋을 듯하다 (17:15).

아덴 아레오바고 앞에서 복음을 증거함 (17:16-33)

17:16-21. -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했다 (17:16). 철학자들은 바울을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당시 아덴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숭배되었고 또 그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한 이방신으로 생각했으며 '부활'이란 말을 예수란 신의 배우자인 여신으로 잘못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레오바고는 문자적으로 '법정' 또는 '아레스의 평의회'라는 뜻으로 주로 종교와 교육, 도덕적인 문제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던 일종의 권력 기구였다. 바울 당시 시의 모든 행정관들은 이 평의회 의 구성원이었으며 면책(免責) 특권을 누렸다. 헬라의 종교적 배경과 철학적 사고 체계에서는 바울의 가르침이 새롭고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에게서 더욱 자세한 내용과 그 배경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17:22-31. - 아레오바고 한 가운데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인식했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 보다는 오히려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모습을 보았다. 바울이 선포한 이 하나님은 "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17:24-25). 아덴 사람들은 수많은 신들을 쫓아 다녔지만 그들로부터 영혼의 갈급함이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 "그를 힘입어...기동하며" 는 크레타(Creta)의 시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B.C.6세기)의 시이며 "그의 소생"이란 표현은 길리기아 시인 아라투스(Aratus, B.C.315-240)의 시 가운데 나오는 당시의 철학자들이면 모두 익숙한 것들이다.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희랍적인 지식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며, 희랍 세계의 시를 인용하여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철저히 복음적이며

성경적이었다 (17:28). 회개는 삶의 태도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데 여기서는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그치고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절에서 심판주를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한 것이 다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심판주란 의례히 초월적 위엄과 권세를 지닌 분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계18:8). 그러나 이 표현은 후반절의 '죽은 자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이란 구절과 연결되면 전혀 어색하지 않다 (17:31).

17:32-34. - 바울의 선포에 대한 아레오바오의 반응은 혼합된 것이었다. 어떤 자들은 부활의 사상을 조소했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했다. 여전히 몇 사람들, 이름이 언급된 두 명의 여인들 (디오누시오와 다마리) 바울과 함께 했고, 신자가 되었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반원들에게 오늘 수업의 학습목표를 알게하라. 오늘 수업의 목표는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나눔으로써 지상 대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음을 설명하라. 기도로 수업을 시작하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이 예수께서 명령하신 지상 대사명에 순종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도록 간구하라.

학습인도

2. 사도행전 15장 (11과)과 16:1-24절을 간단하게 요약하라.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게 되었는지 설명하라.

3. 사도행전 16:25-34절을 소리내서 읽고 다음 질문을 하라:

* 왜 당신은 안수가 "구원" 받기를 원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얼마나 진지했다고 생각하는가?

* 간수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4. 이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16:30-31절의 내용을 참조해서 간수의 질문 (16:30)과 바울의 반응

(16:31)을 설명하라. 이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16:35절의 내용을 이용해서 간수의 "가족"들의 배경에 대해 반원들에게 설명하라.

5. 반원 중 한 사람이 17:1-4절을 읽게하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성경책들을 바울이 사용한 것을 설명하라. 질문하라, 왜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성경을 선택했는가?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도록 하라.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들의 개인적인 필요들때문에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다.

* 왜 바울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펼치는 방법을 사용했는가?

* 바울은 어떻게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

* 우리가 오늘날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7. 학습공과에 있는 "아레오바고스" 참고 글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말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청중의 배경과 상황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성을 설명하라. 학습공과에 있는 "방법에 대한 배경"의 내용을 요약하라. 질문하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상황과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왜, 어떻게 중요한가? 고린도전서 9:19-23절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포함시켜서 토론하라.

적용격려

8. 다음과 같이 말하라,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 교회들과 각 신자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자동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학습공과에 있는 이 문장들을 계속해서 말하라: "교회는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고 준비해서 복음의 내용에는 전혀 타협함이 없이 그들에게 알맞은 증거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세대는 이전의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삶 속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9. 질문하라, 만일 당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3분이 주어졌다면 다음 사람에게 각각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 대학생 그룹

*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 당신이 성경을 읽는 것을 비웃는 사람

10. 바울이 복음의 본질은 전혀 타협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라.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반원들을 인도해주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

<p>[제 13 과]</p>	<p style="text-align: center;">어떤 것도 당신을 막지 못하게 하라</p>
<p style="text-align: center;">핵심본문 사도행전 28:17-31</p> <p style="text-align: center;">배경 사도행전 21:17-28:31</p>	<p>학습주제 사도행전의 결론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방해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p> <p>탐구질문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p> <p>학습목표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무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결심하기</p>

성경 주해

배경이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략 A.D. 57년에 서신을 썼을 때,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하는 그의 갈망과 의도를 표현했었다 (롬 1:11, 13; 15:22-33). 게다가 그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롬 1:7)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그의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그가 종종 그렇게 하려고 했었지만 길이 막혔었다는 것을 알기 원했다 (롬 1:13). 우리도 그 이유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그가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를 보기 원했었고 서바나 (스페인)으로 선교를 갈 때 그들이 도와주기를 원했다. 하지만 로마를 향하여 서쪽으로 가기 전에 사도는 먼저 헬라 성도들이 모든 구제 헌금을 "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롬 15:24-26)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동쪽으로 갔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사실은 선교사로서 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죄수로서 예루살렘 (행 21을 거쳐서 로마로 가려고 했음을 알려준다 (행 28:14, 16)).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9딤후 2:9) 는 것을 믿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감옥에 있는 동안 사도는 기뻐했다. 그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빌 1:12) 것이라는 확신으로 인해 기뻐했다. 그의 주된 관심은 그의 개인적인 달성이 아니라 복음의 전파였다. 회심 이후 바울의 열정적인 헌신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딤후 4:2)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있었다.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다루는 이 과는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고 도전한다.

배경 이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 하려고 청하였노니. . . ” (28:17-22)

바울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12과 (사도행전 17장)의 끝 부분에서 그는 아덴에 있었다. 이 과는 로마에 있는 바울로 시작한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아덴을 떠난 후 고린도로 갔다. 고린도는 전략적인 위치에 놓여 있고 아덴에서 동쪽으로 45마일 떨어져 있으며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렀다 (18:11). 바울은 서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중요하고 커다란 항구도시 에베소에서 3차 선교 여행을 소비했다. 사도행전은 그가 거기에서 3년을 소비했다고 가리킨다 (20:31).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얼마 후,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에베소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고 고소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폭동으로 인해 바울이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21:27-36). 바울이 군중들과 (21:37--22:21) 의회 (22:30-23:10) 앞에서의 분명한 방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향한 적대감은 예민했다. 진실로 바울을 죽이기로 음모한 사람들이 "40명 이상" (23:12-15)이 있었다. 이는 결국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도록 만들었다. 거기에서 그는 벨릭스 총독 아래서 2년 동안 갇혀 있었다 (23:16--24:17). 벨릭스를 이어서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서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거부했던 바울은 황제에게 호소했다 (25:1-12). 헤롯 아그립바 앞에서 심리를 한 뒤 (25:13--26:32)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싣게 되었고, 조난을 당했고 (27:1-44), 독방에 물리기도 했다 (28:1-10).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 거기에서 그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 (28:16) 받았다.

28:17-20. - 바울이 로마에 도착 하여 제일 먼저 한 일은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중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먼저 그는 자기가 동족인 유대인을 거스리거나 유대의 관습을 반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오해의 여지를 없게 하였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허위의 누명을 씌워 사형(死刑)을 가하려 했으나 로마 군사들이 구해준 일(21: 32, 33)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무죄하게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다고만 진술함으로써 가능한 한 반유대 감정을 배제하고 있다.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적대 의식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이사에게 상소(上訴)하기는 했지만, 조금도

동족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려고 한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반대하여 그로 하여금 가이사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바울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 동족을(23 : 2-15 ; 25 : 3) 송사할 의사가 없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 이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다. 바울은 이 소망의 예수그리스도에게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정치적이며 현세적 메시아를 기다렸던 일반 유대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차이 때문에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던 것이다.

28:21-22. - 바울의 말을 다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누가 와서...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고 말한다. 즉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나 혹은 공식적인 임무를 띠고 온 사람을 통해서나 도무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는 것이고, 또한 여행객을 통해 사적으로도 들은 바가 없다는 것이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고 다만 유대교의 많은 종파 가운데 하나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던 듯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 .” (28:23-28)

28:23-24. -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숙소에 모여왔고, 이렇게 하여 바울은 로마의 유대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예수로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핵심적이고 정확 한 증거라고 할수 있다. 복음 선포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이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현현되었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으며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선포이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강행한 바울의 증언은 노력에 비해 충분한 것은 아니었지만 몇 사람의 믿는 사람을 얻었다. 대체로 학자들은 이때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본다(26, 27장). 유대인 동족(同族)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믿음을 갖게 하려는 바울의 노력이 극히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두었던 경우는 본서에 여러 차례 기록된 바이며 (14 : 4 ; 17 : 4 ; 19 : 9)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도 않았고 동족을 포기하지도 않았다(롬 9-11 장).

28:25-28. -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고 마침내는 집회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백성에게...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 본래 이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그가 어떠한 말을 하여도 백성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여 이사야의 말을 청종(聽從)치 아니함으로써 마침내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으로 성취되었다. 이제 바울은 그 말씀을 이사야 시대 백성의 후손들에게 적응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그에 따른 심판을 말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복음을(24절)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28절).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 되었으나 그들이 거부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 이것은 바울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논리이며(13: 48 ; 18:6), 자신의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22 : 18,

21).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28:30-31)

누가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확산됨을 선언하는 것으로 본서를 종결짓고 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로마에 머물렀는데, 본문의 2년은 석방되기 이전 연금된 상태로 있었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16절) 이것은 바울에 대한 재판이 2년 동안이나 열리지않고 연기되었거나, 판결이 지연(遲延)되었음을 뜻한다. "담대히...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자기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여 복음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로마 당국은 바울의 그러한 선교 행위를 방해 하지않았다. 누가는 복음이 로마 당국의 방해받지않고 계속 전파 될 수 있기를 바랐을 것이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던 반면(21 ;27-36; 23:1-15), 로마에서는 복음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전파되었다.이것은 바울에게주어진 소명과 주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22:21 ;23 : 11).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성공적으로전파되기 시작 했으며, 누가는 본서를 매우 간략하게끝을 맺고 있지만, 마침내 복음은 로마와 전세계에 퍼져나가게 될 것을 내다보는 원대한 소망이 있었을 것이다.

교사를 위한 제안들

학습활동 및 강의와 질문

삶과의 연결

1.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부딪히는 방해들을 설명할 수 있는 포스터나 문구를 준비하라 (이미지나 문구는 가족, 돈, 개인적인 목표들/야망들, 다른 사람들의 반응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마크보드에 "이 것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반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질문을 생각해보도록 하라.

2. 학습공과에 있는 학습 목표를 반원들이 참조하게 하라. 오늘 수업의 목적은 사도행전 1:8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있는 장벽들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것임을 설명하라. 기도 가운데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인도

사도행전 : 사도행전 1:8을 실천해야 될 때 (인도자 지침서)

3. 이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 주해" 첫 단락의 내용을 참조해서 사도행전 18:1--28:10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사도행전 28:11-16절을 읽어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로마에 있었다는 것과 그들 중 일부는 그가 로마 근처에 도착했을 때 그를 영접하기 위해 왔다 (행 28:14-15). 그것이 바울을 어떻게 느끼게 하였을 것인지 묘사하라, 그리고 로마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지도를 사용하라. 사도행전 1:8절에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관련하여 그 거리에 대해 토론하라.

4. 반원 중 한 사람이 28:17-31절을 읽게 하라. 그리고 나서 질문하라:

- *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방법은 그 초기의 상황들에 사용했던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가, 다른가? 어떻게 그런가? 학습공과에 있는 "로마 유대인들과의 바울의 두번째 만남" 의 두번째 문장을 참조하라.

- * 당신은 일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는가?

5. 반원들이 사도행전 1:8절을 펴게 하고 함께 읽어라. 28:31절과 함께 비교하게 하라. 질문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어떻게 성취했었는가?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분정도 주고 질문하라; 당신의 예루살렘은, 당신의 유대는, 당신의 사마리아는, 당신의 땅끝은 어디인가?

6. 반원 중 한 사람이 사도행전 28:24-28절을 읽게하라. 이 구절에 대한 인도자 지침서에 있는 "성경주해" 부분을 이용해서 28:26-27절의 배경을 설명하라. 질문하라:

- *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을 그렇게 고집스럽게 거부하도록 만들었는가?
- *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부감이 어떻게 방해가 되는가? 그것이 신자에게 어떤 유익이 될 수 있는가? (힌트, 눅 10:16-17절을 보라)
- * 증인으로서의 삶에 성공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적용 격려

7. 학습공과 끝 부분에 있는 참고 글 "바울의 이름 변경" 을 반원들이 보게 하라.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게 하라. 미리 준비한 종이를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 "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꺼이 바꾸겠는가?" 에 대한 답을 쓰게 하라. 답을 쓴 종이를 성경 책 속에 끼워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나의 삶에서 발견될 때마다 기꺼이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라.

8. 하나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는 장벽들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뛰어 넘을 수 있는 담력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수업을 마치라.